

네이션의 해부

정미령**

서구 네이션의 동아시아적 변용과

도야 내셔널리즘*

초록 서구 네이션(nation)의 기원은 “출신 지역에 의해 결속된 외국인 집단”을 가리키는 다소 경멸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중세 유럽의 극소수 지배 공의회 엘리트 집단을, 그 후 근세의 의회정치적 발전과 근대의 혁명기를 거치면서 점차 주권재민에 기반한 현대적 국민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영국이 상업 자본주의의 성숙과 입헌주의 관습법 체계를 매개로 자생적인 시민사회 기반의 네이션(civic nation)을 선착시켰다면, 프랑스는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모순을 폭발시킨 혁명적 단절을 통해 공화주의적 네이션(people→nation)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반면, 정치적인 분열과 후발 산업화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했던 독일은 고전적인 시민 정체성의 대안으로서 언어·정신·문화에 고착된 유기체적 문화 공동체 폴크(Volk)를 동원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의 또 다른 경로를 개척했다. 네이션은 구체성·배타성에서 추상성·보편성으로, 그리고 후일 구체성·배타성으로 요동치며 변형되었다.

장기 지속된 왕조 체제와 쇄국주의로 인해 자율적인 개인주의 기반의 서구식 사회계약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일본)에서는 블룬칠리의 『일반국법』과 비스마르크 체제로 대표되는 독일 제국의 후발 집권적 유기체론 국가학을 최적의 모델로 수용하며 부국강병을 실행에 옮겼다. 물론 근대화 기획 과정에서 입헌군주제, 의회, 헌법 등 근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자비한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강’(自強) 외에 실존적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수렴되면서 서구 근대성을 칸트적 영구평화론이 아닌 흡수적 자연 상태로 인식하는 한계에 부딪히며 영국식 사회진화론을 변형한 독일식 생물학주의 결정론으로 이어졌다. 이에 동아시아 3국 지식인들은 하드웨어인 국가 제도와 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소프트웨어인 국

* 본고의 심사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비교문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민(nation)의 정치적 역량이 부재할 수 있음을 간파하며, 비판적 사유를 체화한 능동적인 근대적 주체(국민)의 형성을 시대적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였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18세기 말 근대화의 후발 주자였던 독일의 영토에서 자유주의와 초기 낭만주의가 주창했던 최고선인 자아의 총체적 실현으로서의 ‘빌둥’(Bildung)과 유사한 사상적 지향 속에서, 지(智), 덕(德), 체(體)에 더불어 기력(氣力), 능력(能力), 민력(民力), 독립 정신 등 근대 서양의 전인적 인간 형성에 관한 관념과 유교의 도덕적 수양이 결합하며 3국 각자의 특유한 전인적 인간상을 배태하는 ‘도야 내셔널리즘’(Bildung Nationalism)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문명사적 기획을 대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으로서 국가 주도의 점진적인 하향식(top-down) 계몽을 가동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 유기체론은 절대 선(善)으로 격상되었으며, 자율적인 개인의 권리는 유예된 채 국가 이성(Raison d’État) 아래 종속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낳았다.

주제어 네이션(nation), 내셔널리즘(nationalism), 국민 형성(nation-Building), 빌둥(Bildung), 지·덕·체(智德體), 독립 정신, 도야 내셔널리즘(Bildung Nationalism)

1. 프롤로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고도화된 지금-여기의 시공간에서 자본과 정보는 국경을 무력화하며 초국가적·초국민적 시대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의 동질화에 대한 비판—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생태주의(Ecologism), 여성주의(Feminism),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¹이 쏟아지는 가운데, 네이션(nation)이라는 개념이 구태의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² 그러나 결정적인

1 박명규(2009), 「네이션과 민족: 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동방학지』 147, pp. 33-35.

2 E. 루난 [外] 著(1997), 鶴飼哲 [外] 訳, 『国民とは何か』, 東京: インスクリプト, pp. 11, 36. 일찍이 공화국의 승리는 점차 ‘국민’(nation)이라는 개념을 혁명적 에너지에서 안정된 제도로 박제해버렸다. 투쟁할 필요가 없어진 ‘국민’은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체제 안의 부속품으로 전락되면서 쇠퇴가 시작되었다. 유의할 점은 행정적 관리 대상이자 시장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여전히 ‘국가’이며, 이는 위기관리의 최종 심급으로서 국가의 실존적 위치를 입증한다.³

의 소비자로 전이한 ‘국민’(nation)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적 성격과 기능이 구조적으로 재편되었을 뿐이다.

- 3 추가로 부연하면, 팬데믹, 기후 위기, 전쟁 등 실존적 위기 앞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강제력을 가진 단위는 여전히 ‘국가’이다. 무엇보다도 초국적 자본이 자유롭게 유동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법적 안정성, 인프라, 노동력 관리가 필요하다. 자본은 국가를 넘나드는 듯해 보이지만, 분쟁이 발생할 때 자국 정부의 외교력과 군사력이 움직인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본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기능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알고리즘과 네트워크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 듯해도 인간의 소속감은 여전히 네이션(nation)이라는 공동체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른바, ‘우리’(In-group)라는 강한 생명력은 단 한 번이라도 감소한 적이 없다. 최근 미국 포퓰리즘(Populism)의 준동은 한편으로는 급격한 다문화주의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가치관이 주류가 되면서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고수하던 계층이 낙후된 집단으로 취급받는 데서 오는 모욕감, 그리고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단순히 인종차별이나 혐오로 매도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글로벌 무역과 신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경제적 불만의 반발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이것이 잘못된 진단이라고 말한다.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상류층만 혜택을 보고 일반 국민에게는 무력감을 안겨다 준 ‘분노의 판결’이었다고 밝힌다. 즉, 경제적, 문화적 조류에서 낙오된 이들의 저항을 무시한 민주당과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기술관료)에 대한 반발의 결과임을 진단하였다. Michael J. Sandel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p. 17. 포퓰리즘은 왜 민족적 정체성에 기울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결집보다 민족 정체성이 먼저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으로 무너진 이들에게 민족/국가는 개인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무형 자산이다. 둘째, 칼 슈미트(Karl Schmidt)가 논의한 적과 동지의 구별처럼 우리(In-group)와 그들(Outsider)의 구획이 등장하는데, 이때 민족 정체성은 집단을 묶는 가장 쉽고 강력한 접착제이다.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이를 활용하여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구획하여 단순화해버린다. 이를테면, 우리는 소외당한 순수한 자국민이고, 그들은 우리의 일자리와 복지를 차지하는 ‘이민자’, 이에 더불어 이민자를 옹호하며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기득권 엘리트가 ‘악’이자 ‘적’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소외 계층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극우주의와 결합하여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려는 향수 정치를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근대 세계사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한 ‘네이션’(nation), ‘내셔널리즘’(nationalism), 그리고 ‘국민국가’(nation-state)의 삼위일체 개념은 그 본질에 내재한 역사적 다의성으로 인해 현대 인문·사회과학 담론에서 가장 난해한 지적 범주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특히 근현대 동아시아에서 수용한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연대로 형성된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성립한 개념이 아니라, 압축된 시간 속에서 외세의 팽창주의에 맞서 생존 지향적인 목적으로 내부를 결속시키는 국가 주도형/저항적 민족주의 경로를 밟고 등장한 개념이다.⁴ 주지하듯,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은 대외적으로 과거사 청산 문제와 영토·역사 분쟁⁵이 불거질 때마다 집단주의적·종족적 민족주의가 소환되고, 타 국가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함으로써 혐오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 갈등을 겪으며 내부의 소수자와 외국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생존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주의적·종족적 민족주의가 외연을 넓히지 못하고 현대에 와서 생긴 부작용이 아닐까? 국경을 완화하며 초국적 통합을 이뤄낸 유럽연합(EU)의 행보와 달리, 극명하게 대조되는 동아시아 3국의 현실은 근현대라는 시공간으로 소급하게 만들며,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이 내재한 이념적 구조물을 재사유하게 만든다.

19세기 말 대전환기, 근대화를 기획한 동아시아 지식인 사회에서 ‘네이션’(nation)과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실존적 화두였고, 이들의 지적 유산에 대한 현대 학계의 메타 분석은 양적·질적 심화를 거듭하였다. 예컨대,

4 물론 동아시아 3국에서 단순히 피동적인 강제가 아닌 반제국주의적 저항과 자발적 서사의 구축이라는 복합적인 역학이 작동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처음에 서구처럼 자발적인 혁명과 연대를 통해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5 김성보(2007), 「민족·국민사와 동아시아사의 접맥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모색」, 『역사와 실학』 32, p. 817. 일본 역사 교과서의 사실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영토 문제 등이 결부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가 소환되며 고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정치 엘리트와 지식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구 사상의 수용과 천황제 국가 기획의 통치 메커니즘을 구축했는지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중국에는 초국가주의(ultranationalism)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메이지 체제 내부의 본질적이고도 비극적인 내적 긴장 관계를 예리하게 통찰하였다.⁶ 이에 더불어 자유민권운동의 역사적 참여와 저항, 그리고 체제 안팎에서 분출된 다원적 사상사적 흐름을 복원하는 분석 작업도 시도되었다.⁷ 중국은 초기 국가 구상이 5·4 운동이라는 역사적 분수령을 거치며 사상적 전환과 질적 심화를 맞이했다. 현대 학계의 비판적인 해부에 따르면, 중국의 근대 ‘네이션’ 기획은 엘리트 담론에서 출발하여 5·4 운동이라는 다원적 공간 속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해방을 지향하는 ‘계몽’적 가치와 집단적 생존을 도모하는 ‘구망’(救亡)의 요청이 상호 충돌하고 융합하는 고도의 역설적인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었다.⁸ 구한말 한반도의 특수한 맥락에서 근대국가 및 ‘네이션’ 형성을 둘러싼 기획은 변화를 이끌 주체의 급진성과 방법론적 점진성의 불일치, 그리고 중국에는 외세 저항적 민족주의로 사상적 굴절을 겪게 되는 독특한 역사적 궤적을 남겼다. 서구 근대 ‘네이션’ 개념과 다른 한국의 ‘민족’ 개념이 지닌 역사성과 사회성을 해부하거나,⁹ 네이션의 구상과 변용 구조를 규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근대 언론

6 丸山眞男(1956),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東京: 未來社; 松澤弘陽(1993), 『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經驗』, 東京: 岩波書店.

7 鹿野政直(1999), 『近代日本思想案内』, 東京: 岩波書店; Andrew Gordon (2003), *A Modern History of Japan: From Tokugawa Times to the Pres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 李泽厚(1986), 「启蒙与救亡的双重变奏」, 『走向未来』; 汪晖(1989), 「预言与危机(上/下篇)——中国现代历史中的“五四”启蒙运动」, *Literary Review*; 张灏(1999), 「重访五四——论“五四”思想的两歧性」, *Open Times*. 장하오(張灏)는 5·4 운동을 단순한 일원적 운동이 아닌 양면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는데, 그에 의하면, 5·4 운동은 전통 비판과 서구 수용,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라는 상반된 이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공존했던 복합적인 사상적 지형이었음을 밝혔다.

9 박명규(2009), 「네이션과 민족: 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동방학지』 147.

매체라는 신흥 공론장을 매개로 지식인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재생산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성과들도 축적되었다.¹⁰

서구 사상이라는 원본(text)과 동아시아의 절실한 실존적 맥락(context)이 격렬히 충돌하며 발생한 내부적 길항(拮抗)은 당대 지식인 사회에 구조적 분열증을 낳았다.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급무 속에서 발생한 지적 균열의 궁극적인 원인과 제약은 무엇일까? 주지하듯, 국법 개념으로서 추상성을 지닌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결코 정제된 일직선의 개념이 아니다. 16세기 초 영국의 자율적인 시민사회 기반에서 등장한 ‘네이션’은 훗날 프랑스 혁명의 인민(people) 주권의 원리를 흡수하며 보편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네이션’의 형성 궤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지역의 특수성과 결합하며 영토, 종족, 언어, 역사적 전통 등 다변적인 문화적 유대와 역동적으로 결합하면서 끊임없이 이질적인 유형들을 조형해 왔다. 따라서 네이션은 일정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환원될 수 없는 유동성, 즉 ‘설명 불가능성’(inexplicability)을 지니고 있다. 본질적인 층위에서부터 매끄럽지 않은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외세의 침략이라는 실존적 위기에서 동아시아 3국으로 급박하게 이식될 때 어떠한 지적 균열이 발생했을까? 당대 지식인들이 서구의 다양한 네이션 모델 중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도구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구조적 제약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3국에서 이루어진 네이션 번역은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용되고 변용되었는가? 서구 텍스트와 동아시아 콘텍스트가 중첩되며 파생한 사상사적 혼란의 고리를 해부하고 그 기저에 자리한 실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10 공론장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권보드래(2007), 김동택(2008), 박찬승(2008), 송호근(2013)은 네이션(국민/민족)의 외부 수용을 논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으로 대변되는 근대 공론장에서 근대적 개념들이 길항하고 변용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근대적 ‘국민’과 ‘국가’ 개념이 어떻게 유입되고 안착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 논의와 민족 사상과 담론이 실제 국민국가 체제로 물질화되는 역사적 계기들을 실증한 논의는 셀 수 없을 만큼 축적되었다.

다음과 같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동아시아 학계의 지적 지평에서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은 가장 빈번하게 소환되는 문제의식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서구 원전이 내포한 다층적인 개념적 계보(*conceptual genealogy*)와 유형에 대한 엄밀한 추적은 생략된 채 관행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개념적 엄밀성의 결여는 오독의 자기복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분석에서 한계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우선 2장에서는 서구 네이션의 대안적 모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급박한 시대적 상황에 놓인 근현대 동아시아에서 3국 지식인들이 각자 어떠한 개혁 방법론을 매개로 특유의 ‘네이션’ 구축을 기획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궤적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4장에서 동아시아 3국 지식인들이 제시한 국민 형성(*nation Building*)¹¹ 담론이 18세기 후반 독일 지역의 자유주의와 초기 낭만주의에 의해 제시된 빌둥(*Bildung*) 개념과 어떠한 맥락적·구조적 유사성을 지니는지를 추론하고자 한다.

2. 네이션(nation)의 계보 및 유형학

네이션은 “민중이 기다렸을 장소”에 나타난 개념¹²이라는 논의가 있다. 근대성의 확산과 함께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네이션’은 역사적 충위가 복잡하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치열하게 담론화되는 미완의 개념이다. 리아 그린펠드(Liah Greenfeld)에 의하면,¹³ ‘nation’의 기원은 라틴

11 본 논고에서는 불분칠리가 변용한 개념을 표기할 때 대문자 ‘Na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구분되는 일반적·추상적 개념으로서의 국민은 소문자 ‘nation’으로 표기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세부적인 논의는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E. 루난 [외] 著(1997), p. 33.

13 Liah Greenfeld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9. 리아 그린펠드는 nation의 개념적 유래에 대한 일부 내용을

어 *natio*에서 유래되었고, 이때 ‘태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했다. 훗날 로마에서 *natio*는 “출신 지역에 의해 결속된 외국인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다소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로마 시민보다 낮은 지위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했다.¹⁴ 이러한 함의를 지닌 ‘nation’은 그 후, 중세 신학 연구의 거대한 중심지였던 파리대학교에서 출신 지역 및 언어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생 공동체¹⁵를 ‘민족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따라 구분하면서 또 한 번의 의미 변화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 단순한 출신지 공동체를 넘어, 상호부조와 정기적인 학문적 논쟁(scholastic disputations) 장이 형성되면서 ‘nation’은 의견과 목적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때 ‘nation’은 공통의 이념과 결속력을 지닌 주체적 집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격상되었다.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Second Council of Lyon) 이후, 중세 대학의 ‘의견과 목적의 공동체’였던 ‘nation’은 교회 공의회(Church Councils) 대표로 파견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부의 주요 정치적 당파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 당파의 구성원들은 세속 군주와 종교계의 권력자들을 대변하게 되면서 ‘nation’은 점차 정치적·문화적 권위를 쥔 지배 엘리트 집단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수렴해갔다.

중세 가톨릭 공의회나 최고위 관료 집단 등 극소수 엘리트 연합체의

Guido Zernatto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혔다.

- 14 당시 *natio* 개념은 종종 “이교도들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ta ethne*, 그리고 선택된 유일신 신앙의 민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했던 히브리어 *amamim*과 유사한 의미”를 지녔다. Liah Greenfeld (1992), p. 4. 민족 집단의식에 대해 한스 콘(Hans Kohn)은 고대 히브리인과 그리스인에게서 이미 공유되었고, 히브리인은 자신들이 이방인(*gentils*)과 다르고, 그리스인은 야만인(*barbarians*)과는 다르다는 현저한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Hans Kohn (1965), *Nationalism-its meaning and history*,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p. 11.
- 15 Liah Greenfeld (1992), p. 4. 그 사례가 바로 “명예로운 프랑스 네이션(*l'honorable nation de France*,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출신 학생), 충실한 피카르디 네이션(*la fidèle nation de Picardie*, 네덜란드 출신), 존경받는 노르망디 네이션(*la vénérable nation de Normandie*, 북동부 지역 출신 학생), 그리고 굳건한 게르마니 네이션(*la constante nation de Germanie*, 영국과 독일 출신 학생)”이다.

폐쇄적인 범주에 머물렀던 ‘nation’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Puritan Revolution, 1642~1651)과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1688)을 거치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의회를 매개로 인민이 국가의 궁극적 주권자라는 대의제적 논리가 법적·제도적으로 전면에서 부각됨에 따라, 네이션은 비로소 인민을 주권의 주체로 포섭하는 근대적 단위로 재구성되었다. 이 시기 영국을 중심으로 상원(House of Lords)의 귀족 계층과 하원(House of Commons)을 대표하는 신흥 젠트리 및 도시 시민이 연합되면서 ‘nation’은 의회 중심의 엘리트 집단으로 재정의되었다.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던 일반 평민들은 실질적인 정치 참여 권리(참정권)를 획득하지 못했으나, 의회 엘리트들이 국가 전체의 공동선과 인민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가상적 대의’(Virtual Representation)라는 독특한 정치적 논리가 점차 ‘대변자’와 ‘피대변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영국인 전체가 ‘nation’이라는 인지적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 그 후, 18세기 말에 이르러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변을 맞이하며 본질적인 전도를 겪게 된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1789년 1월 프랑스 혁명기 시에예스(Emmanuel-Joseph Sieyès) 신부가 발표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e Tiers-État?*)에서 비롯된다. 시에예스는 특권만을 누리는 귀족을 배격하며 대신 공적인 작용을 지탱하는 농업, 수공업, 유통업에 종사하는 제3신분(Le Tiers État)이야말로 국가를 구성하는 진정한 주체이며 ‘nation’ 그 자체라고 선언하였다.¹⁶ 얼마 지나지 않아, 주권은 오직 인민(people)에 한정되어 있다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3조(1789)를 통해 신분제가 철폐되고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주권자가 지상에 구현되었다. 이때 ‘nation’은 신분과 계급 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피상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구성원 전체가 동질적이라는 가상의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추상화된 공통성과 동질성의 원리야말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다. 훗날 내셔널리즘은 영토, 인종, 언어, 공유된 전통, 역사, 문화

16 Emmanuel Joseph Sieyès (1775), *Qu'est-ce que le tiers état?* Vol. 1, Paris: Zahn, pp. 4-5.

등과 같은 기준과 연계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파생되었다. 그러나 리아 그린펠드는 민족주의가 개별 요소 자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조직하고 특유의 의미를 부여하는 독자적인 조직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일종의 ‘창발적 현상’(Emergent Phenomenon)으로 규명했다.¹⁷ 내셔널리즘은 네이션이 함의한 주권의 담지자, 정치적 연대의 기반, 동질성,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에서 파생된 정치 이데올로기로 배타적 특수주의(particularism)에서 벗어난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정치 원리이다. 그러나 보편적 정치 원리를 내재한 내셔널리즘은 훗날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 언어, 인종적 특성과 결부되면서 배타적인 특수주의로 변형되었다.

정치철학 의제 중 ‘사회’(society)와 ‘국가’(state)의 대립 관계는 네이션 형성론과 긴밀히 연관된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국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도구주의적 국가관과 국가를 인간의 도덕적 삶과 자유 실현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유기체적(이상주의적) 국가관의 대립이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학자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과 자기 이익, 도덕적 감정에 기반하여 내재적인 자생적 구조가 형성된다고 진단했고,¹⁸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상업 사회 내부의 자발적 기제(가격 기제 및 공정한 관찰자)가 객관적인 시장 질서를 형성한다고 분석하였다. 경제적 상호작용과 부의 축적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이행할 법적·정치적 체제(국가)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정의의 집행자로서 상업 사회의 안정적 운용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 귀결된다. 이와 반대로 헤겔(G. W. F. Hegel)에게 근대 “국가는 윤리적 이념의 현실

17 Liah Greenfeld (1992), p. 7.

18 Adam Smith (2003),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NY: Bantam Classics, p. 572; 鉴博言(2024), 「近代国家理论의三条进路及其革命性变革」,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05), p. 76. 애덤 스미스는 ‘동감’(sympathy)이 도덕 판단과 사회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조건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교환시장과 분업의 동력은 동감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라고 분명히 구분했다.

성”¹⁹으로서 개인과 사회, 자유(시민사회)와 공동체(가족/국가)를 매개하는 윤리적 구조로 파악된다. ‘사회’(시장사회)와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 ‘자본=네이션=스테이트’라는 보로메오 매듭 은유를 제시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20세기 말 사회민주주의가 유일한 가능성으로 승인되었다²⁰고 언설하였다. 그는 네이션을 단순한 ‘상상’이 아닌, “‘국가’와 ‘사회’(시장사회)를 매개하고 종합하는 상상력(imagination)”²¹이라고 취급한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처럼 네이션을 단순히 상상되거나 발명된 관념적 구성물로 환원하거나 가라타니 고진이 논의한 것처럼 자본과 국가를 잇는 매개적 보완재와 같은 ‘상상력’이라는 문화주의적 패러다임은 19세기 후반 내셔널리즘 형성기를 설명하는 데 유효할지 모르나, 앞서 살펴본 영국과 프랑스에서 반복되는 혁명적 과정에서 정착된 내셔널리즘을 설명하는 데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에 의하면,²² 영국 절대주의 붕괴와 부르주아 혁명의 도래는 대륙의 공고한 재정-군사 국가 모델이 결여한 스튜어트 왕조의 구조적 취약성이 주변부의 지정학적 충격 및 중심부의 자본주의적 계급 성숙과 맞물려 폭발한 복합적인 위기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부연하면, 대륙과 달리 독자적인 조세 기반과 상비군을 확보하지 못한 미완의 절대주의 체제는 의회 부재로 인한 내부적 교착 상태에 직면했고, 중세 군사 동원력을 보존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주변부 귀족 세력이 국왕의 자의적 종교·재정 정책²³에 맞

19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2017),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Edited by Klaus Grotzsch,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257, p. 237; G. W. F. Hegel (1967), *Philosophy of Right*, Translated by T. M. Kno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 柄谷行人(2004), 『(定本) 柄谷行人集 4: ネーションと美學』, 東京: 岩波書店, p. 41.

21 柄谷行人(2004), p. 13.

22 Perry Anderson (2013),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Verso Editions (ebook version), I. Western Europe 5. England, pp. 127-128.

23 1638년 캐롤라인 왕조(Caroline era/dynasty, 찰스 1세)의 성직주의(Clericalism)가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세속화된 토지와 십일조를 위협하고 장로교 전통에 영국 국교회(성공회)식의 영국식 전례(기도서)를 강요하자, 분노한 스코틀랜드인들이 종교와 경제적 권리

서 강력한 군사적 투사를 감행함으로써 왕정의 재정적·군사적 한계를 치명적으로 노출했다. 스코틀랜드 침공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소집된 의회는 왕정의 사법적 기반을 전복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 구조적 파산의 기회를 틈타 하원의 핵심 세력인 상업화된 젠트리, 도시 부르주아 계층은 절대주의라는 역사적 외피를 초월하여 주권을 장악하였다. 유의할 점은 영국의 혁명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²⁴ 결국, 영국의 내전과 몇 차례에 걸친 부르주아 혁명은 시민들(citizens)을 국가의 권리 주체인 국민(nation)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네이션’의 외형과 정치적 주권의 탈바꿈이 젠트리와 시민 계급의 치열한 세력 전이와 혁명을 통해 실증적이며 능동적으로 구축된 것이 입증된다. 프랑스 역시 수차례의 혁명과 왕정복고가 시계추처럼 교차하는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며 비로소 ‘네이션’의 제도적 정착을 이룩해냈다. 이러한 역사적 가역성(可逆性)과 반복의 드라마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헤겔의 논의를 변주하며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Der achtzehnte Brumaire des Louis Bonaparte*, 1852)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되풀이한다는 통찰을

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결속하며 폭발한 사건이다. Perry Anderson (2013), p. 128.

- 24 주지하듯, 17세기 중반 영국 내전(English Civil War, 1642~1651)이 발발하였고,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 이끄는 의회군은 왕당파를 격파한 후 1649년 국왕을 반역죄로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사건은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신분적·정치적 근간을 물리적으로 파쇄한 결정적인 부르주아 혁명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크롬웰은 1653년 종신 ‘호국경’(Lord Protector)에 취임하며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 독재를 감행했는데, 이는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국왕의 전제 권력을 재현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공화정의 외피를 쓴 군주정으로의 굴절과 크롬웰 사후의 권력 공백은 1660년 왕정복고(Restoration)라는 반동을 불렀고, 이때 찰스 2세가 즉위하고, 이에 뒤이어 제임스 2세(1685)의 전제주의 및 가톨릭 복위 시도는 혁명의 과업이 단선적이지 않은 패러다임의 운동임을 입증하였다. 결국 의회가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며 성취한 1688년의 무혈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입법화를 통해 주권의 중심축을 국왕에서 의회로 이동시킴으로써 전제 왕정의 독단적 권력 행사를 종식하고 근대 입헌군주제의 헌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상기시킨다. 다시 말해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망령과 공화주의적 열망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빚어낸 역설적인 구조적 진화의 과정이었다.

현대 내셔널리즘 연구자(20세기 후반) 존 브로일리(Breuilly, John), 존 암스트롱(John A. Armstrong), 베네딕트 앤더슨, 에른스트 겔너(Ernest Gellner), 앤서니 D. 스미스(Anthony D. Smith), 에릭 홉스봄, 찰스 틸리(Charles Tilly)²⁵는 각각 내셔널리즘을 근대화의 부산물, 에스닉(ethnic) 중심(종족-상징주의, Ethno-symbolism), 원초론적/역사적 접근과 같은 세 갈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을 진행했으나 모두 관찰자적 시선에 입각한 해체주의적 접근, 즉 외부자의 분석적 창을 통해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이 지닌 역사적·심리적 구조의 굴절 경로를 해부한 작업이다. 이와 달리 근대 초기 특정 지역 내부자의 시선에서 당사자로서의 당위론을 논의할 때 과연 어떠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는가?

네이션의 구축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의 원류로 오해받는 피히테(J. G. Fichte)가 제기한 논의를 간과할 수 없다.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Reden an die deutsche Nation*, 1807~1808)에서 *das deutsche Volk, ein ursprüngliches Volk, Volkserziehung, Volkscharakter*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폴크(Volk)²⁶가 언어 연속성, 역사적 기원, 살아 있는 유기적

25 전쟁의 시각에서 내셔널리즘을 분석한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 시기 프랑스군이 유럽 전역으로 진군할 때 프랑스 편과 프랑스의 위협을 받았던 상대방에서 인민 주권과 내셔널리즘이 극적으로 확산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나폴레옹이 패배할 무렵, 유럽 대부분 지역은 지배적, 제국형 내셔널리즘과 해방형 내셔널리즘 두 가지 유형의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Charles Tilly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Rev. pbk. ed., Cambridge, MA: Blackwell, p. 116.

26 歴史學研究會 編(1994), 『國民國家を問う』, 東京: 青木書店, p. 51. “Volk를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것이 보수적이라고 통찰하고 북독일 연방의회·독일 제국의회에 (남성) 보통선거법을 도입한 비스마르크이다. 그 후 Völkerbund(국제 연맹)이나 Volksfront(인민 전선)처럼도 사용되었지만, 나치가 형용사형 völkisch를 애호했기 때문에 오늘날 Volk의 형용사형은 사어(死語)가 되었다.”

공동체임을 설파하고 애국주의의 감정적 호소를 넘어 교육을 통해 도덕적 자아를 실현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주목할 점은 피히테가 제시한 ‘내적 경계’(innern Grenzen)²⁷란 정치적 산물이자 인위적인 구획에 불과한 영토와 달리, 공통의 ‘언어’(정신)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경계를 의미한다. 피히테가 생각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폴크(Volk)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이보다 앞선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는 Volk²⁸를 논의하며 고유한 가문과 가족의 음색,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발음 방식과 언어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는 그들의 고유의 민족적 ‘언어’가 존재하고,²⁹ 그 언어에는 민족정신(Volksgeist)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 언어관을 발전시킨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역시 “어떤 시원적(始原的)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언어의 발달이 비로소 민족적 차이들(nationellen Verschiedenheiten)을 정신의 더 밝은 영역으로 이행”³⁰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런 논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통의 ‘언어’ 및 정신세계를 공유할 때 비로소 민족[폴크(Volk)]이 자

27 Johann Gottlieb Fichte (1808), *Reden an die deutsche Nation*, Berlin: Realschulbuchhandlung; Johann Gottlieb Fichte (2008), *Addresses to the German Nation*, Edited by Gregory Moo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66-167.

28 유의할 점은 헤르더가 주장한 Volk는 국가 없이도 존재하는 문화적 생명체인 반면, 피히테식 Volk는 국민 만들기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29 Johann Gottfried Herder (1966), *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 Edited by Hans Dietrich Irscher, Munich: Hanser; Johann Gottfried Herder (1986), *Treatise on the Origin of Language*, Translated by John H. Moran and Alexander God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0 Wilhelm von Humboldt (1876), *Ue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Mit erläuternden Anmerkungen und Excursen sowie als Einleitung: Wilhelm von Humboldt und die Sprachwissenschaft*, Herausgegeben von August Friedrich Pott, 2 Bde, Berlin: S. Calvary, p. 211; Wilhelm von Humboldt (1999), “On the National Character of Languages,” In *On Language: On the Diversity of Human Language Construc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Human Species*, translated by Peter Heath, edited by Michael Losonsk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8-181.

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피히테와 달리 네이션을 미래를 향한 정치적 합의와 계약으로 바라본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은 ‘네이션’이란 고대부터 존재해 온 영속적인 실체가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 과거의 역사를 빌려 인위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임을 밝힌다.³¹ 그는 nation의 원칙, 권리 형성에 관해 인종, 언어, 종교적 유대감, 경제적 이해관계, 지리적 구분과 같은 외형적 조건을 모두 배제하였다.³² 르낭은 보불전쟁(1870~1871) 패전으로 인한 충격과 프로이센이 알자스-로렌 지역 일부를 영토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 간 영토의 경계 구분에 대하여 국민성 원리(내셔널리즘)를 제시했다. 르낭은 알자스를 프로이센으로 지켜내고 프랑스 영토로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인종, 언어, 역사와 같은 원리를 모두 배제했다. 왜냐하면, 알자스의 언어적, 인종적 요소와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보면, 알자스는 게르만인의 나라이기 전에 켈트인의 나라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부족, 심지어 동굴에 사는 인간, 인간 이전의 오랑우탄에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³³ 특히 내셔널리즘(국민성 원리)에 대해 르낭은 과학적 시각을 정치에서 분리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는 인종을 현실정치, 국가 형성의 근거로 구획하면 결국 동물학적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nation을 생물학적 숙명에서 정치적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 주민의 현실적인 참여 의지라는 근대적 법·권리 체계에 기반한 새로운 국민성 원리를 역설하였다.³⁴ 따라서 nation을 “현재의 묵시적인 동의, 함께 살려는 욕구, 각자가 받은 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³⁵를 명백하게 표명하는 욕구라고 해석한다. 다시

31 E. 르낭 [외] 著(1997), p. 11.

32 Ernest Renan (1871), *La réforme intellectuelle et morale de la France*, Paris: Michel Lévy Frères; Ernest Renan (2018), *What Is a Nation?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Translated and edited by M. F. N. Gigliol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53-261.

33 E. 르낭 [외] 著(1997), p. 35.

34 E. 르낭 [외] 著(1997), pp. 27-29.

35 Ernest Renan (2018), p. 261.

말해 nation은 공동의 역사, 공동의 희생, 공유된 기억(망각을 포함)과 현재 요소가 가미된 함께 살겠다는 선택,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의지, 즉, ‘매일의 국민투표’(an everyday plebiscite)를 통해 이루어진다.³⁶

이렇듯 르낭은 미래의 정치적 합의와 계약을 네이션의 원리로 규명하면서 네이션을 이성적 주체인 개인들이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형성해 나가는 지속적인 공동체라고 보았다면, 피히테는 언어적·정신적·문화적 연속성을 근간으로 삼아, 개별 주체의 선택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선형적·유기적 공동체로서의 네이션을 강조했다.³⁷ 나폴레옹 점령의 존망 위기 속에서 피히테가 강연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1807-1808)은 당시 독일 지역에 미성숙하고 흩어져 있는 Volk를 단순히 호소하는 것을 넘어, 정치·사회적 실체가 미비했던 집단을 근대적 네이션으로 기획하고자 한 정치적 개입이었다. 피히테에게 독일인은 사전에 형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민교육이라는 교육학적·정신적 동원 기제를 통해 구조화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이른바, 물질적 사회구조나 기성 정치제도의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 언어적·문화적 정체성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윤리적 주체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36 Ernest Renan (2018), pp. 261-262.

37 구성주의 이론에서 내셔널리즘의 형성 경로는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두 축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시민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인데, 여기서 문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며,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문화와 역사의 공유를 민족 성립의 근간으로 삼는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를 정치적 목적(국가 통합)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statist nationalism)가 그것이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경우, 공통의 문화나 역사가 없더라도 헌법 등 정치적 가치와 덕목을 공유하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민족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 김동노(2012),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동방학지』 159, pp. 378-381.

3. 국가학 번역과 동아시아 nation의 변용적 수용

네이션 형성은 대체로 세 가지 경로로 분류된다. 하나는 초기 영국이나 일부 서유럽 사회처럼 사회구조가 변화하여 그 현실을 언어화한 자생적인 시민사회론과 다른 하나는 프랑스 혁명의 성과물인 법적·정치적 주권체로서의 인민(people)이 네이션으로 재구성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 기반 없이 사회와 정치구조의 변혁을 이끌어내며 네이션을 형성한 경우이다.³⁸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소위 '민주주의의 현실'이 먼저 존재한 경우이고, 세 번째 유형은 '내셔널리즘 이론'이 등장하여 현실을 창출한 경우이다.³⁹ 사회 기반이 미성숙하고, 지방 자치는 취약하며, 민중은 미개하여 시민사회 모델의 이식이 불가능한 동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경로를 통해 국가건설 과제를 떠맡아야 했고, 이때 패권에 저항하며 국가를 형성했던 독일의 역사적 선례가 최적의 사상적 토양을 제공했다.

38 우고 파가노(Ugo Pagano)에 따르면, “네이션(nation)은 인간의 유한성과 존재론적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주체들이 구상한 상징적 통일체로서의 인위적 구조물”[Suisheng Zhao (2004),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Dynamics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 44 채인용; Ugo Pagano (1995), “Can Economics Explain Nationalism?”, In *Nationalism and Rationality*, edited by Albert Breton, Gianluigi Galeotti, Pierre Salmon, and Ronald Wintro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83-211]이다. 그러므로 네이션은 구성원들에게 초월적인 귀속감과 명예를 제공함으로써 평범한 삶에 실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심리적인 기제로 기능한다. 이러한 국민적 정체성은 국가의 위상에 따라 다르게 투영되는데, 패권국의 구성원에게는 지배적 권력에 대한 동일시와 자부심을, 피압박국의 구성원에게는 집단적 공포와 원한(ressentiment)을 초월적인 대의로 승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네이션의 집단적 충성과 결속을 견인한다. 그린펠드 역시 이에 대해 논의했다. 후발 근대화 지역의 내셔널리즘은 제국주의 위압에서 경험한 억압감, 굴욕감, 그리고 문명적 낙후의 자각이라는 결핍의 토양에서 비롯되며, 정신적·도덕적으로는 우월하다는 집단적 자기 최면을 통해 외부의 강자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스스로의 나약함을 ‘선’(善)으로 승화시키는 ‘가치 전복’이 일어났다. 이때 정신적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와 막스 쉐러(Max Scheler)가 논의했던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 감정)이다. Liah Greenfeld (1992), pp. 15-16.

39 Liah Greenfeld (1992), p. 10.

동아시아 3국 모두 독일의 국가 이론을 수용하였는데, 가장 먼저 서구 근대화 경로에 진입했던 일본은 메이지 시기 독일로부터 헌법, 군제, 국가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1870년대에 블룬칠리(J. C. Bluntschli)의 『일반국법』(*Allgemeines Staatsrecht*, 1852)을 국내에 소개했고,⁴⁰ 1880년대에 들어서서 사상적 기저에 자리 잡고 있던 천황제라는 특유의 보수적인 정치 지향성으로 『인권신설』(人權新說, 1882)을 발표하며 독일식 사회진화론⁴¹을 수용하였으며, 종래의 천부인권론과 결별하며 국가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유보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국가주의⁴²로 전향하였다.⁴³ 동 시기 일본의 초대 내각총리대신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40 블룬칠리의 국가학을 『國法凡論』(1872)으로 번역하고, 그 후, 천부인권론과 입헌군주제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國體新論』(1875)을 집필하였다. 김성배(2012),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개화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2), p. 15.

41 허버트 스펜서(Spencer Herbert)의 사회진화론은 천부인권설의 전면 부정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권이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완성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었다. 우승열패의 논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주의 옹호와 부르주아 정치 참여를 지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사회진화론을 활용했다. 김도형(2007),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양상에 관한 일고찰: 인권신설과 강자의 권리경쟁론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57), pp. 177-178. 그러나 훗날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의미로 점차 왜곡되면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자강하지 않으면 생존 위협을 직면하는 논리로 홀려가 궁극적으로 국가주의 통치로 기울게 되었다.

42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일본이 보수적 국가주의의 길을 선택한 것은 천황제의 원인이 있으나, 약육강식이라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丸山眞男(1956), pp. 156-157; Benedict Anderson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p. 97. 이를테면, 유럽은 보편주의 전통이 기저를 이루며 왕조 국가 간의 다원주의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 간 전쟁을 하더라도 여러 강대국이 서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경쟁했다. 어느 한 나라가 유럽을 독점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과정에서 각 민족과 국가는 저마다 주권을 가진다는 평등한 국제 질서(베스트팔렌 조약)라는 세력 균형이 정착된 점도 이를 입증한다. 반면, 동아시아는 오랫동안 쇄국정책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도 있거니와, 전통부터 전해져 내려온 양이(攘夷) 사상은 내부의 수직적이고 일원적인 질서 인식이 고스란히 국제관계로 이식되면서 어느 쪽이 정복하고 병탄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받아들여 국가주의로 귀결되었다.

43 김성배(2012), p. 15.

는 헌법 조사의 임무를 띠고 유럽 시찰에 나서는데, 빈대학교의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에게서 국가의 행동 원리로서 행정의 의의를 역설한 슈타인의 국가학(Staatswissenschaft)의 영향을 받으며 천황제 헌법 체제를 제도화하여 초연주의(超然主義)적 국가 권력을 확립했다. 청말민초 정치사상가였던 량치차오(梁啟超)는 옌푸(嚴復)의 선구적 번역과 1898년 이후 일본 망명기 동안 가공된 사회진화론적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흡수⁴⁴하면서 내셔널리즘에 대한 구상을 받아시켰다. 약육강식의 글로벌 경합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화론적 자강론은 역설적으로 국가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조직하여 전체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정치학적 과제로 귀결되었다. 량치차오는 블룬칠리의 『일반국법』(Allgemeines Staatsrecht, 1852)을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1903)에서 소개한 맥락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진화론적 적자생존의 열망이 블룬칠리의 유기체적 국가 주권론 및 법치주의적 통합 논리와 결합함으로써, 근대 중국의 내셔널리즘은 단순한 반외세 운동을 넘어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사상적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1880년대부터 유길준(俞吉濬), 박영효(朴泳孝) 등 개화파 지식인과 1890년대 서재필(徐載弼), 윤치호(尹致昊) 미국 유학파에 더불어 20세기 초 박은식(朴殷植), 장지연(張志淵), 신채호(申采浩) 등 지식인들은 가토 히로유키와 메이지 일본의 국제법과 외교사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의 저술은 물론 량치차오의 저작을 통해 사회진화론과 블룬칠리의 국가론을 수용하고 전파하였다.⁴⁵ 유길준은 『서유견문』(1895)에서 서구 근대화를 소개하였으나, 갑오개혁의 실패와 아관파천(俄館播遷, 1896)을 겪으며 개혁을 교란한 고종(군주)과 개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한 무지몽매한 민중에 불

44 양일모(2007),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재고: 중국과 한국의 '진화' 개념의 형성」, 『한국학연구』 17, pp. 90-91.

45 정혜정(2020), 「근대 한중일(韓中日) 블룬칠리의 민족·국민 개념의 수용과 변용: 가토 히로유키/량치차오/나진·김상연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3(3), p. 81. 양일모(2007), pp. 90-91.

신을 가지게 되면서 군주와 민(民)을 초월하는 최고 실체로서의 ‘국가’ 개념에 기울었다. 청일전쟁 이후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로 조선이 국망의 위기에 처하자, 유길준은 국제 정세가 헌정 질서를 규정한다는 라트겐(K. Rathgen)의 목적론적 국가 관념에 공감하며 리노이에 류스케(李家隆介)와 야마자키 데츠조(山崎哲藏)가 일역한 강의록 『정치학』(政治學, 1892)을 번역하였고,⁴⁶ 동시에 블룬칠리 사상의 정수가 담긴 일역본인 가토 히로유키의 『국법범론』(國法汎論, 1872)을 유기적으로 참조하며 미간행 『정치학』(1905-1907)⁴⁷ 원고를 완성했다.⁴⁸

유의할 점은, 동아시아 맥락에서 수용된 ‘네이션’ 개념이 고도의 다층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블룬칠리의 『일반국법』으로 소급할 필요가 있는데, 블룬칠리는 nation을 독일어 Volk과 대등한 개념으로, people을 Nation과 연결 지어 국가적,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nation-Volk, 문화적, 종족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people-Nation으로 규명했다. 이러한 번역에는 ‘Volk’와 ‘Nation’의 어감 차이에서 비롯된다. 독일어에서 Nation은 ‘태어나다’(nasci/natio)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온 외래어였고, 혈통, 출생지, 종족이라는 어감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⁴⁹ 따라서 블룬칠리는 Nation을 ‘출생’(혈통)에 기반한 자연적·종족적인 개념으로 전치하였다. 반

46 김성배(2012), p. 28.

47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1971), 『俞吉濬 全書, 4』政治 經濟編, 서울: 一潮閣.

48 김성배(2012), p. 31. 유길준이 독일 국가학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전적으로 국가주의에 함몰된 것은 아니다. 그의 일차적인 목적은 입헌주의를 통한 근대국가 형성이었고, 조선의 생존을 위해 다소 국가주의적인 성향을 띠더라도 우선은 국민의 애국심으로 결속된 강력한 국민국가(nation-state)를 구성해야만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조선의 생존과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9 Bluntschli (1885), *Allgemeines Staatsrecht*, München: Cotta'schen Buchhandlung, 1868. J. C. Bluntschli, *The Theory of the Sta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 82; 윤영실(2023), 「네이션, 국민자격, 식민지 민족 - 20세기 전환기 제국주의적 국민 담론의 계보학(1)」, 『상허학보』 67, p. 192 재인용; 정혜정(2020), p. 86 재인용; 박근갑(2017), 「한국에 건너온 블룬칠리(Bluntschli) 국가학」, 『개념과 소통』 20, p. 364.

면에 Volk는 라틴어 *populus*, 그리스어 *polis*에서 유래되며 ‘도시’와 ‘국가’를 의미했고,⁵⁰ 오랫동안 신 아래 통치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함의가 들어 있었다. 블룬칠리보다 앞선 피히테는 독일 정신, 문화 공동체인 Volk를 높이 찬양하며 인류 보편정신의 사명감을 부여했다. 피히테 외에 자유주의자들도 독일이 피워낸 문화적 결실을 인류 전체의 자양분으로 환원하는 것을 그들의 진정한 시대적 소명으로 공유했다.⁵¹ 이러한 선행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블룬칠리는 정신적·문화적 공동체인 민족(Nation)이 결국 세계 보편정신의 정점인 Volk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닐까?

1870년 가토 히로유키가 블룬칠리의 『일반국법』을 번역했을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출범하려는 시점에 놓여 있었다.⁵² 가토 히로유키는 『국법범론』(國法汎論, 1872)에서 블룬칠리가 정치적 공동체로 규명했던 Volk를 ‘국민’(國民)으로,⁵³ 문화적 공동체를 지칭했

50 박근갑(2017), p. 364.

51 Frederick C. Beiser (1992), *Enlightenment, revolution, and romanticism: the genesis of modern German political thought, 1790-180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 22. 이런 사상적 흐름은 실러(Friedrich von Schiller)의 미완성된 시에서도 포착된다. “이 문화의 왕국이 독일에서 꽃피며 온전히 자라난다. 낡은 야만적 체제의 고딕식 폐허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화가 성장한다. [...] 독일인은 [...] 세계정신의 선택을 받아 시대의 투쟁 중에도 인간 교육의 영원한 건축을 짓는다.” Cassirer, Ernst (1994), *Freiheit und Form: Studien zu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6. Auf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pp. 303-304.

52 특히 보수와 가토는 천황제 체제를 지키면서도 근대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블룬칠리의 논의를 수용했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논의에서는 가토가 천황제 국가 체제를 염두에 두고 블룬칠리를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블룬칠리가 주장한 국가주권론은 “군주를 국가 내의 군주로 제한”하고, 국가를 국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국가 주권은 국민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항미(2014),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Bluntschli)의 주권론: 국민주권으로서의 “국가주권”」, 『국제정치논총』 54(3), pp. 47-49. 1881년 이후 가토는 블룬칠리의 국가학과 결별하며 다양한 서구 사상을 학습하면서 자신만의 사상을 정립했다는 논의가 있다. 김도형(2020), 「근대 일본의 블룬칠리 수용과 한계에 관한 고찰: 가토 히로유키의 경우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3, 동아시아일본학회, p. 30.

53 흥미로운 것은 Volk의 번역어가 ‘국민’(박근갑, 2011,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

던 Nation을 ‘민종’(民種)으로 옮겼는데,⁵⁴ 이때 언어·풍속·지리적 특성을 공유하는 ‘민종’ 안에 생물학적 범주로서의 ‘인종’(race, 人種)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가토는 “民種은 많은 民衆이 함께 同一 취향의 開化를 얻음으로써 탄생한다. 國民은 많은 民衆이 함께 하나의 國家를 이룸으로써 탄생한다. 民種은 國家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 國民이 되는 것”⁵⁵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공되지 않은 민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 문화와 취향이 같아져 ‘민종’이라는 집단(민족)이 형성되었고, 이런 ‘민종’이 힘을 갖추어 국가를 세우거나 국가 체제 안으로 통합되었다. 국가의 성립 덕분에, 그 안에 있던 민종(민종들)이 비로소 법적·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국민’(nation/Volk)⁵⁶으로 탈바꿈되었다는 논리다. 다른 한편, 서구발 ‘네이션’이 동아시아로 유입될 때,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메이지 엘리트들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民)과 혈연적 연대를 뜻하는 ‘족’(族)을 결합하여 특유의

Allgemeines Staatsrecht; 가토 히로유키, 『國法汎論』, 『개념과 소통』 7)에서 ‘인민’(박근갑, 2017)으로 재수정되었는데, 이러한 궤적은 유의미한 사상사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블룬칠리가 『일본국법』(1851~1852)을 작성하고 출간한 시기, 독일은 아직 국민국가 미형성기에 놓인 위치의 역사적 맥락을 엄밀히 반영한 것이 아닐까? 즉, ‘인민’으로의 번역적 전환은 국가에 선행하여 자율적 도야와 저항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Volk의 본래의 역동성을 복원하려는 사상사적 재정립의 시도로 이해된다.

- 54 가토 히로유키가 번역한 ‘민종’(民種)의 기원은 블룬칠리가 언어와 종교를 기반으로 형성한 문화·정신 공동체의 함의가 배제되고 성정(性情)과 풍속(風俗)이 내재해 있다는 논의가 있다. 가토 히로유키(2011), 홍선영 역, 『國法汎論』, 『개념과 소통』 7, pp. 269~278; 정혜정(2020), p. 89 재인용. 그런데, 일부 논의에서는 블룬칠리가 제시한 state, volk, nation 개념을 가토 히로유키는 국가, 국민, 민족으로 번역했다는 논의도 있다. Huang, Philip C (1972), *Liang Ch'i-chao and Modern Chinese Liberalism*,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 56~64[앙드레 슈미트(2007),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서울: 휴머니스트, p. 677; 박찬승(2008),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1, p. 96 재인용].
- 55 박근갑(2011), pp. 270~271. 부연하자면, 이때 민종(民衆)은 개개인을 의미하고, 이 개개인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면서 민종(民種)으로 구성되는데, 민종의 힘으로 국가가 성립되면 민종은 정치적 구성원인 국민으로 정착된다.
- 56 국법 개념으로서의 추상성을 띤 nation과 블룬칠리가 이에 대응한 개념으로 Volk를 제시했으므로 모두 표기해두었다.

‘민족’(民族)이라는 신조어를 창출했다는 논의도 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민족’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한 것은 아니었고,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 여전히 관행적 담론의 언어로 전면화되지 못한 채 이론적 잠복기와 지체 과정을 겪었다.⁵⁷

가토 히로유키와 달리 량치차오는 블룬칠리의 다민족 공동의 질서로 결합하는 사상적 영향을 받으며 한족(漢族)이라는 강력한 문명적 구심점 위에 다민족을 융해하여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량치차오는 혈통에 갇히기 쉬운 ‘종족’(race) 대신, Nation을 정치적·문화적 통합체로서의 ‘민족’(民族, 中華民族)이라는 번역어를 제창하며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⁵⁸는 해석이 있다. 동 시기, 조선에서 나진과 김상연은 블룬칠리의 『일반국법』을 선별하고 해설한 『국가학』(1906)에서 ‘인민’과 ‘국민’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블룬칠리가 제시한 Nation을 인민으로, Volk을 국민으로 번역했다⁵⁹는 논의가 있다. 이는 앞서 블룬칠리가 people을 독일 Nation과 국법 개념으로서의 추상성을 지닌 nation을 Volk와 연결 지어 사용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측된다. 외교권 박탈[을사늑약(1905)]을 겪으면서 점차 국권 상실의 위기로 접어들면서 국법 개념으로서의 ‘국민’(nation) 관념의 공동화(空洞化)는 국가 수립 전, 공동체를 묶을 ‘민족’을 국권 회복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1900년대 초반부터 ‘국민’ 개념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⁶⁰ 1908년부터 『대한매일신보』에서 ‘민족’ 개념의 출

57 西川長夫(1998), 『國民國家論の射程』, 東京: 柏書房, pp. 85-86.

58 한국사연구회 엮음(1995),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서울: 지식산업사, p. 87.

59 정혜정(2020), pp. 99, 101.

60 국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 것은 1905년 이후이고 본격적인 사용은 1907년 이후이다. 그러나 국민 형성에서의 문제는 결국 주권체로서 국민을 상상하는 문제였기에, 임금과 백성, 아버지와 자식보다는 덜 위계적인 공동체로 국민을 상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평등애를 반영하는 ‘동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김동택(2002), 「近代 國民과 國家 概念의 수용에 관한 研究」, 『대동문화연구』 41, pp. 374-375.

현은 급격히 상승했고 한일합병(1910) 이후 ‘민족’ 개념은 더 널리 사용되었다.⁶¹ 1900년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등장한 ‘민족’ 개념에는 ‘인종’적 함의가 다분히 들어 있었는데, 이는 앞서 가토 히로유키가 불문칠리의 『일반국법』(*Allgemeines Staatsrecht*, 1852)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Nation을 인종적 함의가 들어 있는 민종(民種)으로 번역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민족’은 국법 개념이 아닌 문화 개념으로서 준-국민적 집단을 가리킨 것으로 짐작된다.

4. 지·덕·체(智德體) 도야(*Bildung*)와 네이션 형성의 정치학

19세기 국가 생존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국가 기구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절대명령으로 대두되었다. 메이지 엘리트들은 국가를 도덕적 삶과 자유를 실현하는 최고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관점인 가부장적 천황제⁶²

61 1908년부터 『대한매일신보』에 민족 용어의 출현이 급격히 상승했다. 김동택(2002), p. 378; 김동택(2008), 「大韓每日申報에 나타난 ‘民族’ 개념에 관한 研究」, 『대동문화연구』 61, pp. 414-415. 『황성신문』(1907)의 ‘2천만 민족’ 담론과 1908년 4월 10일 논설은 담론의 주도권이 ‘국민’에서 ‘민족’으로 이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국가 건설의 주체로 제정립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박찬승(2008), pp. 106-109.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민족과 국민의 구별」이란 글이 기고되었고, 같은 해 연재물로 기획된 「독사신문」에서 신채호는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민족 역사를 최초로 구체화했고, 1910년 『대한매일신보』 「20세기 신국민」(20世紀 新國民)에서는 2천만 동포이자 민족이 근대국가 주체인 ‘신국민’으로서 호소되었다. Andre Schmid (2002), p. 181. 유의할 점은 190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한 ‘민족’ 개념은 근대국가 체제와 무관한 전근대적 혈통 집단인 ‘부족’과의 범주적 구분이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체로서의 ‘국가’와 역사·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차별화하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 혼용되어 있었다는 논의가 있다. 권보드래(2007),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1905~1910년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33, p. 200.

62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효(孝)의 논리가 변용한 것이며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가족 국가론(家族國家論)이 이를 입증한다. 唐利

를 구심점으로 삼아 대내적 통합을 위한 국가주의와 대외적 팽창을 위한 군국주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제력을 극대화한 변종 리바이어던(Leviathan)을 연성해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국가를 구하고 생존할 것인가”라는 국가 ‘구망’(救亡)과 민족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서 량치차오를 비롯한 쑨원(孫文), 그 후 중국 지식인들 역시 주권적 인민의 해방이라는 근대적 과제를 유예하였고,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대 명제 아래 국가 구제를 실용주의적 도구로 변용하였다. 앞선 일본, 중국과 달리, 조선은 그야말로 모순과 격변으로 가득 찬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였다. 대한제국이라는 구(舊) 군주제의 잔재가 채 청산되기도 전에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조선의 백성은 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이라는 기묘하고도 굴욕적인 정체성을 강요받았다. 이는 구체제의 해체와 식민지화라는 두 거대한 혼란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중첩되었다. 그러나 이 척박한 토양 위에서 피어난 1919년의 3·1 독립운동은 식민지 지식인과 대중의 정치적 상상력을 단숨에 근대적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⁶³ 3·1 운동의 광장에는 공화국의 평등한 인민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과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제국의 신민이라는 낡은 의식이 하나의 시공간 속에 복잡하게 중첩되었다.⁶⁴ 어제의 피지배자가 오늘의 주권자로 각성하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역사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화국’이라는 유토피아를 현실화하기 위해 당장 눈앞의 거대한 일본 제국을 몰아내야 했고, 이를 위

國(2022), 「井上哲次郎與近代日本の國家建構」, 『南開日本研究』 01, p. 119; Stefan Tanaka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스테판 다나카 저(2004),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196-197; 井上哲次郎(1911), 「我が國體と家族の制度」, 『東亞之光』 6, pp. 1-19.

63 이기훈(2019), 「3·1운동과 공화주의—중첩, 응축, 비약」, 『역사비평』 127, p. 108. 1919년 3·1운동 이후, “국민대회”, “공화만세”라고 쓴 깃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기, 더불어 ‘민주제’, ‘대의제’를 채택한 임시헌법은 이미 대중의 옛 질서 감각이 교란되고 공화주의라는 정치적 감각을 체화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64 이기훈(2019), p. 96.

해 민중의 압도적인 동원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긴박한 과제가 선행되어야 했다. 결국 국권 회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방금 자유로운 주권자로 깨어난 인민을 향해 국가에 대한 희생과 충성을 강요했다.

약육강식의 규범이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주권 확보는 단순히 국가 수립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제도적 형식주의에 머무를 수 없었다.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실질적인 동력으로서 인민의 주체적 ‘각성’ 즉, 전근대적 ‘미몽’으로부터의 탈피해야 하는 질적 도정(道程)이 사상사의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영토가 강대국의 침략 표적이 되고 주권이 무력화되기 쉬운 가상적 권리에 머물던 당시 지형에서 동아시아 근대국가 수립의 성패와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변수는 외형적 제도가 아닌 ‘국민’이었다. 따라서 무력한 영토와 주권에 실질적인 방어력과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신민(subject)을 근대국가의 주권자인 국민(nation/citizen)으로 연성(鍊成)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이러한 거시적인 지적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한편, 각국이 직면한 특수 맥락에 기반하여 국민 형성(nation-Building) 프로젝트에 나섰다. 국민 형성의 핵심 과제는 다름 아닌 근대적 주체를 계몽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주체(국민)에 대한 계몽은 18세기 후반, 지역적 개념에 불과했던 독일⁶⁵의 사례로 소급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독일에서 초기 낭만주의(Frühromantik, 1797~1802)⁶⁶에

65 Isaiah Berlin (1999), *The Roots of Roman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41-42. 16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까지 독일은 정치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중앙집권화에 실패하였다. 18세기 독일은 300명의 제후와 1,200명의 소제후로 쪼개진 채 하나의 국가가 아닌 단순한 지역적 개념에 불과했다.

66 유의할 점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정치적 위기 속에서 비평가들은 낭만주의 뿌리 전체를 반(反)이성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민족주의의 태동과 연결하며, 특히 후기 낭만주의의 보수적 결과물만을 보고 역추적하여 초기 낭만주의의 혁명적이고 해방적인 출발점까지 오염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은 자유주의 및 좌파적 해석의 주요 결함이다. 실제 파시즘 세력은 초기 낭만주의가 지닌 보편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유대인에 대한 호의적 태도,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반군사주의 및 아이러니”와 “해체적 의식”을 이유로 그들을 철저히 거부했다. 오히려 나치는 대중을 규격화하고 통일성을 과시하기에 용이한 실러 등의 고전주의 미학을 악용해 정치의 예술화를 꾀했으며, 결국 초기 낭만주의는 18세

더불어 자유주의(Liberalism)를 옹호한 사상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환영했고, 앙시앵 레짐의 몰락에 환호하며 특권과 억압, 부정의로부터 자유로운 새 시대를 기대했다.⁶⁷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 혁명 이후 발생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1789년 7월 14일)과 공포정치(1793~1794년)처럼 혁명이 치유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와 분쟁을 목격하였다. 초기 낭만주의 선구자인 헤르더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처형과 자코뱅파의 전체정치를 깊이 경멸하였으며, 이러한 공포정치에서 비롯된 잔혹성과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민의 도덕적 교육의 결여라는 문제로 진단하였다.⁶⁸ 독일 자유주의와 초기 낭만주의자 모두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극단적인 폭력에 대한 공포 속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연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근대 시민사회와 공화국의 도래를 기대했다. 그들은 미성숙한 민중을 공화주의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역량과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갖춘 근대적 주체로 계몽하고자 했다. 티크(Ludwig Tieck), 노발리스(Novalis), 셸링(Friedrich Schelling),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슐레

기 말의 반계몽적 대중과 20세기 초 파시즘이라는 정치적 왜곡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수용사의 비극을 겪었다. 최문규(2005), 『독일 낭만주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51-52. 낭만주의는 초기, 중기, 후기라는 세 시기에 걸쳐 변화했고, 이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얹혀 있다. Frederick C. Beiser (2003), *The romantic imperative: the concept of early German romantic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44. 독일 낭만주의는 시기별로 계몽주의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며 사상적 지평을 넓혀갔는데, 초기 낭만주의(Frühhromantik, 1797~1802)는 보편적 이성에는 반대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와 개성적 창조라는 계몽적 가치를 계승하여 이를 감성과 상상력으로 보완·통합하는 계몽의 계몽을 지향했다. 이어 절정기 낭만주의(Hochromantik, 1802~1815)는 냉철한 합리성과 과학적 담구를 비판하는 대신,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연관성을 감정적·예술적 경험과 초월적 이해를 통해 파악하려는 주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후기 낭만주의(Spätromantik, 1815~1830)에 이르러서는 프리드리히 슐레겔(Friedrich Schlegel)과 아담 뮐러(Adam Müller), 자카리아스 베르너(Zacharias Werner) 등을 필두로 계몽 가치관이 개인주의와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이성보다는 신앙과 전통, 공동체적 유대를 강조하며 과거의 신념 및 사회구조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67 Frederick C. Beiser (1992), p. 24.

68 Frederick C. Beiser (1992), pp. 220, 229.

겔(Friedrich Schlegel/August Schlegel)을 비롯한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자유·평등·우애라는 가치와 참된 인간성은 오직 ‘공화국’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몽테스키외(Montesquieu)와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역설한 “공화국은 지혜와 덕성을 요구한다”는 명제에 부응하며 도덕·정치·미학의 점진적인 교육을 통해 독일인을 이성적 주체로 고양하는 데 주력하였다.⁶⁹ 근대적 주체를 계몽하기 위한 사상적 기틀로서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최고선’으로 소급했고, 이 최고선은 문화 인간의 ‘타월성’과 ‘완전성’에 도달하는 다름 아닌 *Bildung*(정신적·도덕적 교양/도야)⁷⁰이었다. 이 빌둥(*Bildung*)은 인간이 내면의 정신적·도덕적 잠재력을 전인적으로 발달시켜 ‘자기실현’에 이르는 과정이며, 이러한 완전성은 공동체나 국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⁷¹ 이때 예술은 *Bildung*을 완성하는 매개체로서, 단지 미적 경험이라는 자족적 목적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정치적 가치와 결합하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주체(국민)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⁷² 이른바, 초기 낭만주의자들이 미학적 교육을 통해 *Bildung*을 제창한 궁극적인 목적은 공화국의 이상적 시민을 양성하고

69 Frederick C. Beiser (2003), pp. 48-49.

70 Frederick C. Beiser (2003), p. 26. 독일어 *Bildung*는 본래 암묵적인 것이 실재적이고 조직적이며 명확한 형태로 발전해간다는 ‘형성’(formation)의 함의를 지녔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 교육, 문화, 발전(또는 교양)을 의미하며 자기실현의 결과물 혹은 자기실현 윤리학으로 기술해도 무방하다. 본 글에서는 ‘정신적·도덕적 교양/도야’로 표기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71 명시할 점은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계몽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들, 즉 스스로 생각할 권리, 자기 결정권, 외부 권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전시킬 권리, 교육과 계몽의 가치, 편견, 미신, 무지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에서 적어도 “두 가지 근본 원칙, 즉 급진적 비판(개인이 스스로 생각할 권리)과 *Bildung*(공공의 교육)”을 옹호하며 이를 계승했다. Frederick C. Beiser (1992), p. 47. 헤르더를 포함하여 초기 낭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 모두 *Bildung*을 제창했다.

72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독트린, 즉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며 정치는 제일의 학문에 동의했으므로 ‘예술’을 ‘정치’에 종속시켰고, 이때 ‘예술의 목적은 빌둥(*Bildung*), 즉 인간의 교육이며, 이는 오직 국가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Frederick C. Beiser (2003), p. 173.

이를 바탕으로 공화국을 수호하는 실천적, 윤리적 주체를 기획하는 데 있다.⁷³

1806년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에게 패배하고 신성로마제국이 붕괴한 사건은 독일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은 독일 부르주아를 비롯한 당대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독일은 왜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졌는가?”라는 깊은 실존적 고뇌에 빠져들게 했다. 그들은 독일의 패망과 쇠퇴가 단순히 군사적 열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했다. 헤르더와 슐레겔이 정초한 민족문화의 역사적 고유성과 유기적 개별성 담론을 자국의 사상적 정당성으로 흡수한 피히테는 이러한 철학적 유산을 단순한 사유의 영역에 가두어두지 않고 대외적 침탈 국면에서 민족(volk)의 정신적·문화적 재건을 추동하는 실천으로 전화(轉化)하고자 분투하였다. 피히테는 헤르더의 언어철학에서 민족정신(Volksgeist)을 찾아내며 독일을 고유한 세계관으로 규정하고, ‘내적 경계’(innern Grenzen)라는 성벽 안에서 독일인만의 진정한 사유를 찾아냈다. 그는 독일을 구원하려면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고, 최우선 과제는 교육을 통해 독일인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개인에게 교양이 필요하듯, Volk도 정신적·도덕적 교양/도야(Bildung)를 쌓아야만 비로소 주체적인 인격체[국민(nation)]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피히테는 독일의 민족정신을 인류의 진보와 보편적인 가치를 완성할 역사적 주체로 설정하고 여기에 시대적 사명을 부여했다.⁷⁴ 이는 독일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매개로 하여 인류 정신

73 특히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실러의 『미학 서한』(Aesthetische Briefe, 1793) 테제를 본떠 오직 예술, 즉 미학적 교육을 통해 인간의 분열된 능력을 통합하고 대중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초기 낭만주의 잡지 『아테네움』(Athenäum)의 목표도 Bildung 구축의 헌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Frederick C. Beiser (2003), pp. 49-50.

74 피히테에게 국가는 개인의 인격 함양과 교육을 위한 한시적인 수단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소멸해야 하는 존재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독일인은 근원적 민족(Urvolk)을 순수하게 실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이라는 ‘보편성’을 구체화하려 한 사유의 발로로 읽힌다.⁷⁵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직면한 동아시아에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국제법적 질서 내에서 주권적 정당성을 승인받을 수 있는 근대국가의 구축이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정작 국가를 지탱해야 할 민중들에게서 국가 정체성을 공고히 할 정신적·도덕적 역량과 성숙한 정치적 감각이 결핍되어 있음을 진단했다. 이때 동아시아 정치 엘리트와 지식인들은 자코뱅주의(Jacobinisme)의 급진적인 공포정치를 경계하며 전인교육을 통한 시민적 인격의 형성이야말로 진정한 근대국가를 지탱하는 보루라는 19세기 독일 사상가들의 진단에 깊이 공감하였다. 그 이유는 1870~188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은 지식인과 엘리트가 주도하고 민중이 결합한 연대 운동이었으나, 이런 엘리트들의 자유주의 요구마저도 메이지 정부는 프랑스 혁명식의 자코뱅주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으로 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태평천국 운동(太平天國運動, 1850~1864),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 1899~1901),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1894)에서 분출된 가공되지 않은 대중의 에너지는 국가를 구하기보다 파괴적인 내전이나 국가적 혼란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어 공포의 실체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아직 근대적 국민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민중/농민들이 대중정치를 일으켜 국가적 혼란과 내전을 가져올 경우,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할 수 없을뿐더러 국제 사회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민중을 문명화된 주체로 계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확신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사유에서 일본은 국가를 지탱할 지적·도덕적 함양을 갖추면서 독

Ernst Cassirer (1994), pp. 347~348.

75 문화적 다원주의자인 헤르더와 같이 피히테 역시 처음부터 배타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독일 민족을 통해 인류 보편정신을 재생시키려 했다. 그러나 블룬칠리의 사상적 궤적 안에서 이 최고선의 달성은 독일 민족의 당위적인 과제로 설정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육에 순응해야 하는 독트린이 자리 잡게 되었다. 박근갑(2011), p. 265.

립 정신을 갖춘 국민 형성/계몽 운동에 나섰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문명론 개략』(文明論之概略, 1875)에서 문명의 진정한 수용은 외형적인 서구 문명의 모방[의식주, 제도(법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민중의 정신’(국민정신)을 먼저 내면화하는 데 있다고 역설하였다.⁷⁶ 특히 후쿠자와 유키치는 국민에게 독립심이 결여될 경우 국가와 정치 문제에 무관심해지고, 대외적으로는 주체성을 잃은 채 아첨하게 되며, 사적으로는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의 평등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 개개인의 ‘독립 정신’(자립 능력)을 구축하고 고취할 것을 호소하였다.^{77, 78} 자코뱅주의가 초래한 공포정치와 같은 염려도 있었겠으나, 가토 히로유키는 『인권신설』(人權新説, 1882)에서 서구의 천부인권설을 전면 부정하고 인간을 철저히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함으로써, 야만적 생존 투쟁 속 강자의 권리로부터 자유 경쟁의 권리가 유래했다는 냉혹한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국가가 외적 경쟁에 대응할 국민을 구축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그는 ‘최대우자’(最大優者)인 절대적 국가 권력이 인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하향식으로 부여하고 계몽함으로써 유럽 부르주아에 대등한 상등 인민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발전 강령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⁷⁹ 그의 저술과 번역 전

76 福澤諭吉(1962), 『文明論之概略』, 東京: 岩波書店, pp. 28-29. “即ち或人所云の人心風俗を察するとは此事なる可し. この一段に就ては余輩固より異論なしと雖ども, 或人は唯文明の外形のみを論じて, 文明の精神をば捨てゝ間はざるもの如し.”

77 福澤諭吉(1942), 『學問のすすめ』, 東京: 岩波書店, pp. 30-37. “一身獨立して一國獨立する事. 第一條 獨立の氣力なき者は國を思ふこと深切ならず, 第二條内に居て獨立の地位を得ざる者は外に在て外国人に接するときも獨立の義を伸ること能はず, 第三條 獨立の氣力なき者は人に依頼して惡事を爲すことあり.”

78 鹿野政直(1999), 『近代日本思想案内』, 東京: 岩波書店, pp. 44-46. 이 외에도 메이지 시기 계몽 사상가인 니시 아마네(西周)는 「国民氣風論」에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는 「人民性質ヲ改造スル説」에서 일본 백성의 오랜 노예적 심성과 풍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권리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이들이 주체적인 근대 ‘국민’으로 거듭날 것을 주장했다.

79 김도형(2007), pp. 178-180.

반에서는 유가적 지식인의 품성이 투영된 지덕(智德)·재지(才智)·기력(氣力)의 함양이 인민 계몽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었다.⁸⁰ 일본의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량치차오 역시 전통적인 천하(天下) 질서라는 우주론에 안주하던 제국 중국이, 19세기 말 서구의 사회진화론적 생존 경쟁이라는 파괴적 근대성과 맞닥뜨리며 겪은 정체성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치열하게 고뇌하였다. 그는 서구의 근대적 제도와 민족주의 의식을 전략적으로 전유하고 강력한 주권 국가로 거듭나서 국가의 자립과 진정한 국력 회복을 위해 서양의 제도, 학문, 기술 같은 외적인 것만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내적 역량을 혁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⁸¹ 량치차오는 「중국적약사원론」(中國積弱溯源論, 1901)과 『신민설』(新民說, 1902)에서 애국심과 주체적 ‘국민’의 부재를 지적하며, 수동적인 신민(臣民)⁸²을 민덕(民德)·민지(民智)·민력(民力)을 갖춘 ‘신민’(新民)으로 탈바꿈할 것을 주창했다.⁸³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계몽주의 시도는 낮은 민도, 극심한 혼란, 열강의 압박과 같은 가혹한 현실 벽에 부딪혀 일찍이 좌절되었고, 량치차오는 자유와 평등보다 강력한 질서와 유기적 통일을 우선시하는 ‘개명 전제론’(開明專制論)으로 선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엘리트 지배 중심으로 회귀했고, 이러한 사상적 전환은 량치차오 개인에 그치지 않고 쑨원으로 이어졌다. 쑨원은 『건국方略』(建國方略, 1917~1920)에서 교육의 보급과 민

80 정혜정(2020), p. 92.

81 梁启超(1998), 『新民说: 少年中国的国民性改造方案』, 郑州: 中州古籍出版社, pp. 54-55. “今论者于政治、学术、技艺, 皆莫不知取人长以补我短矣, 而不知民德、民智、民力实为政治、学术、技艺之大原. 不取于此而取于彼, 弃其本而拿其末, 是何异见他树之蓊郁而欲移其以接我槁干, 见他井之泪涌而欲其流以实我罍源也! 故采补所本无以新我民之道, 不可不深长思也.”

82 인용한 텍스트에서 수동적 ‘인민’이라고 지칭했는데, 실제로 ‘인민’은 서구 맥락에서 능동적인 혁명적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종종 인식되므로 ‘신민’(臣民)으로 대체하여 논의하였음을 밝혀둔다.

83 古厓忠夫(2000), 「20世紀中國における人民、國民、公民」, 西村成雄 編, 『現代中國の構造變動 3-ナショナリズム: 歴史からの接近』,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 233.

권(民權)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였으며, 『삼민주의』(三民主義, 1924)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민족정신인 도덕(道德), 지식(智識), 능력(能力)을 복원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⁸⁴

점진적 개화론자 유길준은 서구화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인 ‘허상개화’를 경계하고, 조선의 주체적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유가적 덕목이 구현된 문명사회를 지향하였다.⁸⁵ 그는 『서유견문』(1889)에서 구상한 ‘문명’의 이념을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주체 형성과 법률·(공)교육이라는 근대적 제도 장치, 그리고 근대 과학의 방법론 및 언어적 매개를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합체로 보았다.⁸⁶ 그러나 유길준은 법률만으로는 자유를 유지할 수 없고, 국민 계몽 교육을 통해 개인의 권리 의식이 확립될 때 비로소 국가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⁸⁷ 그는 민권(民權)이 곧 국권의 토대임을 밝히며, 법률이라는 외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성원의 내적 덕성과 이성의 개화야말로 진정한 근대국가 형성의 근본 토대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훗날 이광수(李光洙)는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라는 비극 속에서 그 화살을 인민의 내면과 도덕성으로 돌려

84 孙中山(2011), 『三民主義』, 北京: 中国长安出版社, pp. 59-65. 1) 恢复民族地位的方法之一——恢复固有的道德 2) 恢复民族地位的方法之二——恢复固有的智识 3) 恢复民族地位的方法之三——恢复固有的能力

85 장인성(2024),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의 실학정신과 한국사상사」, 『대동문화연구』 125, pp. 171-172.

86 김현주(2002), 「식민지 시대와 ‘문명’·‘문화’의 이념 1910년대 이광수의 ‘정신적 문명’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0, p. 95.

87 유길준(2006), 『서유견문』, 과주: 서해문집, pp. 153-154. “국민 각자가 자기의 권리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자기 나라의 권리도 귀중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 (이 권리를) 죽음으로써 지킬 것을 맹세하게 되니, 이는 교육으로 개화시키고 인도하여 그 실효를 거둬야 한다. 법률의 보호에만 오로지 의존하여 그 공을 나타낼 수는 없다.” “당국자들은 국민들을 교육하여 국정에 참여할 지식을 갖춘 뒤에 이러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정치체제가 실시된 뒤에야 그 나라가 개화되기를 바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정치체제가 나라를 보전하는 커다란 길이며,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될 것이다.” 유길준(2006), p. 178.

자기 규율적 내셔널리즘의 서사로 완성되는 정점을 보여주었다.⁸⁸ 3·1 운동이라는 대중 봉기의 한계와 좌절을 목격한 이광수는 『민족개조론』(1922)에서 문화주의 민족개조라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광수의 사상적 행보는 1908년 안창호(安昌浩)가 제창한 수양 이념에 기반한 청년학우회의 ‘수’(修) 이념에서 그 원점을 찾아볼 수 있다.⁸⁹ 청년학우회는 인격 수양을 통해 개개인이 근대적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다. 이광수는 수양 이념을 이어받으면서도 인간 정신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하여 정신적인 문명화를 기획하였다. 그는 조선 민족에게 내재화된 허위, 나태, 비사회적 기질을 민족 쇠퇴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진단하며, 민족성의 재구조화는 개별 주체의 산발적인 노력을 넘어 엄격한 규율을 갖춘 정치적·사회적 결사체를 통해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른바, 예수가 조직한 교회, 석가모니 및 기타 종교에 더불어 “덕(德), 체(體), 지(智) 삼육(三育)을 표방하는 기독교청년회라든지 금주, 금연의 동맹”⁹⁰은 모두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개인보다 공동체 ‘민족’의 정신적인 문명화를 사상적 준거로 삼았다.

앞서 살펴본 가토 히로유키, 후쿠자와 유키치, 랑치차오와 쑨원, 유길준과 이광수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근대 지식인들이 주창한 지(智)·덕(德)·체(體)의 배양, 기력(氣力), 능력(能力)과 민력(民力)의 진흥, 그리고 독립 정신의 호소는 18세기 말 분열과 대외적 위기에 처했던 독일의 자유주의 및 초

88 유길준을 거쳐 이광수에 주목한 이유는 이광수가 특정 문학 분과의 범주적 경계를 해체한 인물이자 한반도 민족 형성 서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실현한 결정적인 기표이기 때문이다. 김항(2013), 「개인, 국민, 난민 사이의 ‘민족’: 이광수 「민족개조론」 다시 읽기」, 『민족문화연구』 58, pp. 166-167.

89 김현주(2002), pp. 96-97, 100. 이광수의 정신적 문명론은 ‘인간’(인권)과 ‘국민’(민권)의 두 정체성(개성과 연대성)을 화해시키며 연결하고자 노력했으며, 종교·학문·예술을 통해 근대 주체를 형성·육성하고자 했다. 이를 연결하는 핵심 원리로 ‘정’(情)과 ‘동정’(同情)을 제시했다. 김현주(2002), pp. 107, 114.

90 李光洙(1967), 『民族改造論』, 서울: 大成文化社, p. 12.

기 낭만주의가 시민적 도덕성과 주체적 역량을 고양하고자 제창했던 전인적 인간 형성 ‘빌둥’(Bildung, 정신적·도덕적 교양/도야)의 담론 구조와 깊은 사상사적 궤를 같이한다. 주목할 점은 동아시아 3국 지식인들이 제시한 국민 형성 담론은 독일에서 제창한 Bildung과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나, 유가적 품성과 수양 이념이 결합한 동아시아 특유의 ‘도야 내셔널리즘’(Bildung Nationalism)을 빚어냈다.

유의할 점은 계몽주의의 기계론적 국가관, 자연법 교설과 거리를 둔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유기체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 은유를 사용하며 사회적 유기체론을 제시한 것이다.⁹¹ 초기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사회적 유기체론은 후기 낭만주의자 아담 뮐러(Adam Müller)의 『국가정치학의 요소』(*Die Elemente der Staatskunst*, 1808)를 거치며 보수적인 정치적 유기체론으로 흘러갔다.⁹² 아담 뮐러가 국가를 유기체에 비유하며 결속력을 강조했다면, 헤겔은 국가를 거대한 윤리적인 유기체로 정립⁹³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분칠리는 국가를 실재하는 도덕적·영적 유기체이자 인격체로 규정했다.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서 독일의 국가유기체 이념을 이질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우주와 국가, 개인을 연속적인 생명체로 파악했던 유교적 ‘천인합일’(天人合一)과 ‘가국일체’(家國一體)의 전통적인

91 Frederick C. Beiser (1992), pp. 237-238. 초기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사회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유기체의 부분들처럼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주적 공동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92 Frederick C. Beiser (1992), p. 238.

93 부연하면, 나폴레옹 점령기라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피히테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기원을 호명했다면, 헤겔은 실존적인 비통을 계승하여 도달해야 할 “이성적 국가 체제는 무엇인가”라는 제도적인 대안을 철학적으로 집대성했다. 헤겔에게 네이션은 자발적인 시민 공동체가 아니라, 윤리적 주체이자 주권의 유일한 체현인 국가(Staat)를 통해서만 매개되는 유기체적 실체였다. 그러나 각자도생의 시민사회를 넘어 개인이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 일부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논리는 훗날 국가가 개인을 Volk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과 법률은 물론, 나아가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중을 통제하고 동원할 절대적인 정당성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했다.

세계관과 개념적 공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연속적인 사유 체계 속에서 불문칠리가 제시한 실재하는 영적 유기체로서의 국가는 낯선 서구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아시아의 오래된 유기체적 공동체주의⁹⁴를 근대적 언어로 재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완벽한 준거 틀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상적 절합(Articulation)은 개인이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건강한 세포로서 지·덕·체(智德體)와 기력(氣力), 능력(能力)의 균형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 독립 정신,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내면화함으로써 국가의 독립을 수호하는 근대적 주체이자 국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당화하였다. 이는 도야(Bildung) 이념과 유기체적 세계관이 융합하여 독자적인 주체 형성 경로를 창출해냈다. 한 가지 명시할 점은 근현대 동아시아 3국이 서구 근대적 주체(국민) 형성 메커니즘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3국 내부의 역동성과 차이를 소거한 채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는 방향으로 논의된 점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당시 근현대 동아시아 3국이 놓였던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각기 달랐듯, 구체적인 ‘도야 내셔널리즘’의 세부 전개 양상과 계몽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 역시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쳤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94 申宗浩, 「歷史와 愛國心の 關係」, 『대한협회회보』 제2호, 1908년 5월 25일. “今 夫 國이란 者 v. 一 가족의 結集體 (西諺에 云 國家란 者 v. 家族 二字의 大書) 며 歷史란 者 v. 一國民의 譜牒이라.” 지금 무엇 ‘나라’(國)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모인 결집체이며 (서양 속담에 이르기를 ‘국가란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쓴 것뿐이다’라 하였다), ‘역사’(歷史)라는 것은 한 국민의 족보(보첩)이다. 元泳義, 「人民의 共同的 責任」, 『대한협회회보』 제2호, 1908년 5월 25일. “四肢百體五官七竅五臟六腑三百六十四穴脉의 完全한 肉體與精神의 國體를 結合함은 個個人의 責任이라.” 사지백체와 오관칠결, 오장육부와 364개의 혈맥이 완전히 결합한 육체와 정신처럼 하나의 온전한 국체(國體)를 결합하는 것이 바로 개개인의 책임이다.

5. 에필로그

지정학적 외세침략의 위기와 자생적인 부르주아 및 자각된 근대적 주체의 부재라는 이중 구조적 제약에 놓인 근현대 동아시아 3국은 근대국가 건설과 그 실체인 ‘네이션’을 구축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 사상과 토착적인 역사 토양의 충돌이 빚어낸 개념적 변용은 특유의 치열하고 복잡다단한 지적 오디세이를 맞이했다. 한스 콘(Hans Kohn)이 말했듯이, 과거 중세(기독교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종교’였다면, 현대와 근대를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인 열쇠는 ‘네이션/내셔널리즘’일 것이다.⁹⁵ 서구 nation은 시작 단계에서 다소 경멸적인 “출신 지역에 의해 결속된 외국인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서 nation은 중세 신학 대학에서 단순히 출신 지역이 같은 학생들의 상호부조 모임으로 변형되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회 공의회에서 사회적·정치적 지배 권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으로 의미가 굴절되었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근대적 혁명을 거친 인민(people)이 주권자로 격상되면서 추상적, 보편적 개념인 nation으로 정착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흔히 현대 민족주의의 원형을 의미하는데, 각 국가의 국경 안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혈통·역사와 결합하여 타자를 배척하는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리아 그린펠드는 이러한 nation 개념의 변형을 ‘지그재그 패턴’⁹⁶으로 해석하였다.

근대 초기 영국에서 네이션은 자생적인 시민사회(citizen society)를 통해 발흥한 개념이었다면, 프랑스에서는 인민(people) 주권이라는 정치적 정당성 체계로 전치(轉置)시키며 근대 국민국가의 핵심 구조를 완성했고, 프랑스식 네이션이 함의한 이성 중심의 보편주의는 독일 접경에 이르러 종족적·문화적 유대를 정체성으로 삼는 Volk로 변격(變格)되었다.⁹⁷ 근대 이행

95 Hans Kohn (1965), p. 4. Preface. 내셔널리즘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을 밝혀둔다.

96 Liah Greenfeld (1992), pp. 6, 9.

97 영국, 미국의 citizen, 프랑스의 people, 그리고 피히테가 논의한 폴크(Volk, 유기체적 민

기 동아시아 3국의 국가 건설과 ‘네이션’ 구축은 제국주의의 전방위적 압력과 전근대적 세계관의 붕괴라는 공통의 실존적 위기 속에서 각국의 독특한 사상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차별화된 역사적 경로로 분화하였다. 메이지 일본의 경우, 자율적인 주체의 연대를 꿈꾼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화 기획은 가토 히로유키의 사회진화론적 국가 유기체론과 치열하게 경합하는 과정에서 그 추동력을 잃어갔으며, 결국 후쿠자와 자신마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탈아론』(脫亞論, 1885)을 제창하며 국가주의로 선회하는 사상적 굴절을 겪었다. 이러한 기류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의회와 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초연주의적 천황제 헌법 체제(1889)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청말민초(清末民初) 중국에서는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근대적 주체를 창출하려는 개혁과 혁명의 이중주가 변주되었는데, 이는 ‘신민’(新民)의 도덕적·문명적 도야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구상한 량치차오와 ‘삼민주의’(三民主義)의 기치를 내걸고 체제 변혁을 단행한 쑨원의 혁명적 시도로 가시화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金玉均(金玉均)의 급진적 체제에 맞선 온건 개화와 유길준은 서구식 네이션 모델의 단계적이고 제도적인 이식을 도모했으나, 식민지 전략이라는 전대미문의 주권 박탈에 직면하여 신채호를 필두로 한 지식인들에 의해 영토적 경계를 초월하는 ‘혈통’과 ‘역사’를 매개로 한 강력한 선험적·저항적 민족 정체성의 사상적 토대가 급격히 구축되었다.

근현대 동아시아는 에른스트 겔너가 논의한 네이션이 내셔널리즘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이 네이션을 낳았고, 네이션의 구축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논의한 자율적인 민중 주도 민족주의가 아닌 ‘관주도 민족주

족/국민), 더불어 러시아어 *narod*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독일어 *volk*, 러시아어 *narod*, 프랑스 *people*은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시하는데, 독일의 *volk*는 프랑스 *people*보다 조금 더 배타적인 요소가 들어 있고, 러시아 *narod*는 *volk*와 *people*보다 더 집단적인 측면이 있다. Albert S. Lindemann (2013), *A History of Modern Europe: From 1815 to the Present*, Chichester, West Sussex: Wiley-Blackwell, p. 95.

의'(Official Nationalism)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메이지 일본, 청말민초 중국, 구한말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국가 및 헌법 체제의 층위에서 자연법적 주권 원리를 승인하고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적 외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실상 이들이 주목한 핵심 과제는 법적 권리의 평등한 구현보다는 내면의 정신적·도덕적 교양/도야(Bildung)를 통해 국가의 총력적 방어선이 될 '네이션'을 연성(鍊成)하는 데 있다. 이른바, 국가의 제도적 구축이란 일종의 형식적 외피에 불과하며, 공화주의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역량과 시민적 덕성을 갖춘 근대적 주체가 형성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대외적 침략과 내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3국 지식인 가토 히로유키가 제창한 지덕(智德), 재지(才智), 기력(氣力)의 함양, 후쿠자와 유키치가 『학문을 권함』(學問のすすめ, 1872~1876)에서 강조한 국민 독립 정신에 더불어 량치차오가 『신민설』(1902)에서 논의한 민덕(民德)·민지(民智)·민력(民力), 쑨원이 『삼민주의』(1924)에서 언급한 도덕(道德), 지식(智識), 능력(能力), 그리고 구한말 유길준이 주창한 내적 덕성과 이성의 개화 교육, 이광수가 『민족개조론』(1922)에서 논의한 지(智), 덕(德), 체(體) 삼육(三育)은 모두 지식과 학문, 과학적 논리 및 판단력의 고양을 대변하는 지(智)와 도덕적 내면화, 시민적 덕성, 애국심 및 공공 윤리를 지키는 덕(德), 그리고 국가 방위에 필요한 민력(民力)이자 체(體), 더욱이 독립 정신까지 갖춘 근대적 국민 형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주체(국민)로 계몽하고자 했던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기획은 본질적으로 18세기 말 독일 자유주의와 초기 낭만주의자들이 인간 자아의 총체적인 완성이라는 최고선으로 설정했던 '정신적, 도덕적 교양/도야'(Bildung)와 깊은 사상사적 궤를 같이하지만,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3국의 차별화된 근대적 '도야 내셔널리즘'(Bildung Nationalism)의 궤적을 창출해냈다. 이러한 계몽적 기획은 동아시아 현실정치의 공간에 투사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향식 계몽 메커니즘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신체적·물리적 차원의 강제적 규율은 물론, '애국심'과 자발적 '희생'을 최고 덕목으로 강요하는 내면

적 규율도 함께 작동되었다.⁹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자아실현 전제가 실현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어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는 묵시적인 계약이 정당화의 전제로 놓여 있었다. 이른바 주권 권리의 획득을 미래로 끊임없이 유예하는 사전적 기약은 그 자체로 현재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보상 기제로 기능하며 압축적인 근대화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동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초국가적 연대와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에 근대 네이션 형성과 내셔널리즘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자칫 시대착오적인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분출하는 격렬한 국가간 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중·일에서 관찰되는 역사 갈등, 배타적 애국주의, 사이버 내셔널리즘(Cyber-nationalism)은 여전히 ‘국가’라는 단위와 내셔널리즘적 집단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근현대 동아시아 3국 지식인들은 국가 형성, 국민 형성 청사진에서 유사한 ‘도야 내셔널리즘’을 도출했으나, 그 내면에 주입된 국가 내러티브와 ‘타자’(other)의 설정은 정반대였다. 일본은 황국신민화와 아시아의 맹주로서 서구에 맞선다는 근대화 서사를 구축했다면, 중국은 서구와 일본 제국에 의해 짓밟힌 중화의 수치(국치)를 극복하고 중흥을 이룬다는 민족 부흥 서사를 만들었다. 한국은 일제 강점과 외세침략에 맞서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저항적 서사가 중심을 이뤘다. 이처럼 각자의 맥락에서 자국 중심적 서사를 구축했기에 인접국을 향한 보편적인 연대로 확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자를 향한 도덕적 우월감이나 피해의식과 같은 배타적 내셔널리즘으로 귀착

98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논의에 따르면, 16~18세기 근대국가 형성기 통치 메커니즘은 그리스·로마 전통의 법적·주권적 통치와 중세 기독교 전통의 ‘사목권력’(Pastoral Power)을 접목하여 개별 주체와 집단으로서의 인구를 대상으로 삼는 ‘생명정치’(Biopolitics) 메커니즘이 작동되었다. 이런 생명정치 메커니즘은 단순히 신체에 대한 외적 통제에 그치지 않고, 애국심, 자발적 순응, 국가를 위한 희생과 같은 내면적 규율[감정 규율(Emotional Discipline)] 또한 고도화되었다.

되었다. 세부적인 논의는 오늘날 심화되는 지정학적 위기와 정체성 갈등의 본질을 해부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속해서 요청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가토 히로유키(2011), 『國法汎論』, 홍선영 역, 『개념과 소통』 7.
- 권보드래(2007),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1905~1910년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33.
- 김도형(2007), 「가토 히로유키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번역양상에 관한 일고찰: 인권신설과 강자의 권리경쟁론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7.
- 김도형(2020), 「근대 일본의 불문칠리 수용과 한계에 관한 고찰: 가토 히로유키의 경우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3.
- 김동노(2012),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동방학지』 159.
- 김동택(2002), 「近代 國民과 國家 概念의 수용에 관한 研究」, 『대동문화연구』 41.
- 김동택(2008), 「大韓每日申報에 나타난 ‘民族’ 概念에 관한 研究」, 『대동문화연구』 61.
- 김성배(2012),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개화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2(2).
- 김성보(2007), 「민족·국민사와 동아시아사의 접맥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모색」, 『역사와 실학』 32.
- 김항(2013), 「개인, 국민, 난민 사이의 ‘민족’: 이광수 「민족개조론」 다시 읽기」, 『민족문화연구』 58.
- 김현주(2002), 「식민지 시대와 ‘문명’·‘문화’의 이념 1910년대 이광수의 ‘정신적 문명’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0.
- 니시카와 나가오 저(2002),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서울: 소명출판.
- 박근갑(2011), 「요한 카스와 불문칠리, Allgemeines Staatsrecht; 가토 히로유키, 『國法汎論』」, 『개념과 소통』 7.
- 박근갑(2017), 「한국에 건너온 불문칠리(Bluntschli) 국가학」, 『개념과 소통』 20.
- 박명규(2009), 「네이션과 민족: 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동방학지』 147.
- 박찬승(2008),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1.
- 송호근(2013),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서울: 민음사.
- 스테판 다나카 저(2004),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서울: 문학과지성사.
- 申案浩, 「歴史と愛國心の關係」, 『대한협회회보』 제2호, 1908년 5월 25일.
- 앙드레 슈미드(2007),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서울: 휴머니스트.
- 양일모(2007),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재고: 중국과 한국의 ‘진화’ 개념의 형성」, 『한국

학연구』17.

오항미(2014), 「요한 카스와 블룬칠리(Bluntschli)의 주권론: 국민주권으로서의 “국가주권”」, 『국제정치논총』 54(3).

元泳義, 「人民의 共同的 責任」, 『대한협회회보』 제2호, 1908년 5월 25일.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1971), 『俞吉濬 全書, 4』 政治 經濟編, 서울: 一潮閣.

유길준(2006), 『서유견문』, 파주: 서해문집.

윤영실(2023), 「네이션, 국민자적, 식민지 민족: 20세기 전환기 제국주의적 국민 담론의 계보학(1)」, 『상허학보』 67.

李光洙(1967), 『民族改造論』, 서울: 大成文化社.

이기훈(2019), 「3·1운동과 공화주의: 중첩, 응축, 비약」, 『역사비평』 127.

장인성(2024),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의 실학정신과 한국사상사」, 『대동문화연구』 125.

정혜정(2020), 「근대 한중일(韓中日) 블룬칠리의 민족·국민 개념의 수용과 변용: 가토 히로유키/광치차오/나진·김상연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3(3).

최문규(2005), 『독일 낭만주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사연구회 엮음(1995),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서울: 지식산업사.

鑑博言(2024), 「近代国家理论의 三条进路及其革命性变革」, 『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05).

李泽厚(1986), 「启蒙与救亡的双重变奏」, 『走向未来』.

梁启超(1998), 『新民说: 少年中国的国民性改造方案』, 郑州: 中州古籍出版社, 1998.

孙中山(2011), 『三民主义』, 北京: 中国长安出版社.

唐利國(2022), 「井上哲次郎與近代日本の國家建構」, 『南開日本研究』 01.

汪晖(1989), 「预言与危机(上/下篇)——中国现代历史中的“五四”启蒙运动」, *Literary Review*.

张灏(1999), 「重访五四——论“五四”思想的两歧性」, *Open Times*.

井上哲次郎(1911), 「我が国體と家族の制度」, 『東亞之光』 6.

植手通有(1972), 「國法汎論」, 「人權新說」, 『日本の名著 34 西周 加藤弘之』, 東京: 中央公論社.

鹿野政直(1999), 『近代日本思想案内』, 東京: 岩波書店.

柄谷行人(2004), 『(定本) 柄谷行人集. 4: ネーションと美學』, 東京: 岩波書店.

古厩忠夫(2000), 「20世紀中國における人民, 國民, 公民」, 西村成雄 編, 『現代中國の構造 變動 3-ナショナリズム: 歴史からの接近』,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西川長夫(2001), 『國民國家論の射程』, 東京: 柏書房, 1998.

松澤弘陽(1993), 『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經驗』, 東京: 岩波書店.

丸山眞男(1956),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東京未來社.

福澤諭吉(1942), 『學問のすすめ』, 東京: 岩波書店.

福澤諭吉(1962), 『文明論之概略』, 東京: 岩波書店.

歷史學研究會 編(1994), 『國民國家を問う』, 東京: 青木書店.

E. ルナン [外] 著(1997), 鶴飼哲 [外] 訳, 『國民とは何か』, 東京: インスクリプト.

- Albert S. Lindemann (2013), *A History of Modern Europe: From 1815 to the Present*. Chichester, West Sussex: Wiley-Blackwell.
- Anderson, Perry (2013),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Verso Editions (ebook version).
- Anderson, Benedict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ndre Schmid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1999), *The Roots of Roman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luntschli (1868), *Allgemeines Staatsrecht*, München: Cotta'schen Buchhandlung. J. C. Bluntschli (1885), *The Theory of the Sta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assirer, Ernst (1994), *Freiheit und Form: Studien zu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6. Auf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Emmanuel Joseph Sieyès (1875), *Qu'est-ce que le tiers état?*, Vol. 1, Paris: Zahn.
- Fichte, Johann Gottlieb (1808), *Reden an die deutsche Nation*, Berlin: Realschulbuchhandlung.
- Fichte, Johann Gottlieb (2008), *Addresses to the German Nation*, Edited by Gregory Moo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derick C. Beiser (1992), *Enlightenment, revolution, and romanticism: the genesis of modern German political thought, 1790-180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Frederick C. Beiser (2003), *The Romantic Imperative: The concept of early German romantic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 Gordon, Andrew (2003), *A Modern History of Japan: From Tokugawa Times to the Pres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feld, Liah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s Kohn (1965), *Nationalism-its meaning and history*,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2017),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Edited by Klaus Grotzsch,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Hegel, G. W. F. (1967), *Philosophy of Right*, Translated by T. M. Kno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rder, Johann Gottfried (1966), *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 Edited by Hans Dietrich Irmscher, Munich: Hanser.
- Herder, Johann Gottfried (1986), *Treatise on the Origin of Language*, Translated by John H. Moran and Alexander God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bsbawm, Eric J.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mboldt, Wilhelm von (1876), *Ue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Mit erläuternden Anmerkungen und Excursen sowie als Einleitung: Wilhelm von Humboldt und die Sprachwissenschaft*, Herausgegeben von August Friedrich Pott, 2 Bde. Berlin: S. Calvary.
- Humboldt, Wilhelm von (1999), "On the National Character of Languages," In *On Language*, translated by Peter Heath, edited by Michael Losonsk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ang, Philip C. (1972), *Liang Ch'i-ch'ao and Modern Chinese Liberalism*,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Michael J. Sandel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Pagano, Ugo (1995), "Can Economics Explain Nationalism?," In *Nationalism and Rationality*, edited by Albert Breton, Gianluigi Galeotti, Pierre Salmon, and Ronald Wintro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an, Ernest (1882), *Qu'est-ce qu'une nation?*, Paris: Calmann Lévy.
- Renan, Ernest (2018), *What Is a Nation?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Edited and translated by M. F. N. Gigliol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mith, Adam (2003),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NY: Bantam Classics.
- Smith, Anthony D. (2001),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Cambridge: Polity Press.
- Tanaka, Stefan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illy, Charles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Rev. pbk. ed., Cambridge, MA: Blackwell.
- Zhao, Suisheng (2004),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Dynamics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natomy of the Nation

Zheng, Meiling*

The East Asian Reconfiguration of the
Western Nation and *Bildung* Nationalism

The Western concept of the nation originated in a somewhat derogatory sense, referring to groups of foreigners bound together by their regions of origin. It subsequently evolved into the small, elite groups that dominated medieval European councils, and then, through the development of parliamentary politics in the early modern period and the revolutions of the modern era, gradually transformed into the modern concept of the nation as a sovereign people. Britain, through the maturation of commercial capitalism and the mediating institutions of constitutionalism and common law, was an early exemplar of a civic nation rooted in an organically developed civil society. France, by contrast, demonstrated the paradigmatic model of a republican nation, a transformation from *people* to *nation*, through the revolutionary rupture that brought the contradictions of the *Ancien Régime* to a head. By contrast, confronted with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political fragmentation and late industrialization, Germany pioneered another path to nationalism by mobilizing the Volk as an organic cultural community rooted in language, spirit, and culture, as an alternative to the classical model of civic identity. The nation thus underwent a

* 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historical oscillation from concreteness and exclusivity toward abstraction and universality, and later back toward concreteness and exclusivity.

In modernizing East Asia (Japan), where centuries of dynastic rule and seclusion had made Western-style theories of social contract grounded in autonomous individualism difficult to access, the state instead adopted the *organicist Staatslehre* of late-developing German Empire, exemplified by Johann Caspar Bluntschli's *Allgemeines Staatsrecht* (1852) and the Bismarckian system, as a particularly suitable model, putting the principle of "wealth and military strength" (*fukoku kyōhei*) into practice. Of course,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re were efforts to adopt the values of modern republicanism and democracy, including constitutional monarchy,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ism. Yet these efforts ultimately converged on the logic that, in a ruthless international order, there was no existential alternative to *self-strengthening*. This led to a fundamental limitation: western modernity came to be understood not through Kantian ideals of perpetual peace, but through a Hobbesian condition of the state of nature, which in turn paved the way for a German-style biological determinism derived from a transformed version of British social Darwinism. Accordingly, intellectuals i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recognized that even with the institutional and systemic "hardware" of the nation-state in place, the absence of the "software" of a politically capable nation remained a fundamental problem. They therefore identified the formation of active modern subjects—citizens/nationals capable of embodying critical thought, as the foremost task of their time. At the time, East Asia developed a form of *Bildung* Nationalism by combining an intellectual orientation analogous to *Bildung*, advocated by liberalism and early Romanticism in the German territories undergoing

belated modernization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and conceived as the highest good of the comprehensive realization of the self, with Confucian moral cultivation and modern Western ideals of holistic human formation, including intellect (智), virtue (德), and physical cultivation (體), as well as vital strength (氣力), capacity (能力), popular strength (民力),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This synthesis gave rise to distinctive ideals of holistic human subject in each of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As a practical methodology for mobilizing the masses around this civilizational project, they set in motion a state-led, gradual, top-down program of enlightenment. However, in this process, organicism of the state was elevated to the status of an absolute good, while the rights of autonomous individuals were suspended and subordinated to the dictates of *Raison d'État*, giving rise to a profound historical irony.

Keywords Nation, Nationalism, Nation-Building, *Bildung*, *Jideokche* (智德體), Independent Spirit, *Bildung* Nationalism

